

# 이화동창

동창의 날 기념행사 / 올해의 이화인 48인 추대 / 제6회 이화가족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 이화동창

2017년 여름 제147호



## 표지화

오용길(모교 동양화과 명예교수)  
이화교정  
(화선지에 수묵담채, 62×72.5cm, 1995년)

- |   |   |
|---|---|
| <p><b>02 동창의 날 기념행사</b></p> <p><b>10 2017 올해의 이화인</b></p> <p><b>13 제6회 이화가족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b></p> <p><b>17 이화 창립 131주년 감사찬양예배</b></p> <p><b>18 총동창회 소식</b></p> <p><b>23 선교부 소식</b></p> <p><b>24 축하합니다</b></p> <p><b>26 제2회 '빛나는 이화인' 상 수상자 인터뷰</b></p> <p><b>30 나의 스승 나의 제자</b></p> <p><b>34 이화의 이곳저곳</b></p> <p><b>38 만나고 싶었습니다</b></p> <p><b>42 모교 소식</b></p> <p><b>46 모교사용설명서</b></p> <p><b>48 대학(원) 소식</b></p> <p><b>51 과(학부) 소식</b></p> <p><b>58 지회 소식</b></p> <p><b>65 동창 근황</b></p> <p><b>72 동창이 펴낸 새 책</b></p> | <p>또 다른 출발점에 선 이화를 응원하며<br/>이호정 동창 외 47인</p> <p>동심으로 그려낸 이화의 봄</p> <p>이화가 세계 복의 근원이 되기를 기도하며<br/>모교 총장 첫 직선제에 총동창회 선거인단 1,020명 참여 외</p> <p>단기선교 환송예배</p> <p>전효숙 동창 외 9인</p> <p>삼성전자 종합기술원 상무이사 박종애 동창</p> <p>김형대 조형예술대학 회화·판화 전공 명예교수와 제자들</p> <p>이화여자대학교 국제하계대학</p> <p>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동창</p> <p>모교 제16대 총장에 김혜숙 교수 선임 외</p> <p>이화글판</p> <p>사회과학대학 외</p> <p>불어불문학과 외</p> <p>남가주 지회 외</p> <p>김양식 동창 외</p> <p>『아버지의 산』 외 6권</p> |
|---|---|

## 편집위원

김영주(교육 71, 총동창회장)

정준순(약학 72, 부회장)

김광옥(식영 75, 부회장)

이영희(사학 88, 홍보부장)

김미령(커미부 69)

임은실(국문 86)

박종분(중문 89)

정진숙(행정 89)

##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회보 · 2017년 여름 147호

발행 2017년 7월 10일 발행 | 발행인 김영주 | 발행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이화·삼성교육문화관 8층) | 전화 02-3277-3386~7 | E-mail ewhaalum@ewha.ac.kr  
홈페이지 <http://www.ewhaalum.or.kr> | 편집 문화정원 | 인쇄 제이오 | 값 1,000원

이화동창에서 사용한 사진의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 2017 이화여자대학교총동창회 Printed in Korea



## 동창의날 올해의 이화인



이화 창립 131주년 동창의 날 기념행사

### 또 다른 출발점에 선 이화를 응원하며

#### 졸업 50주년·30주년 동창 재상봉과 총장 초대 오찬

이화 창립 131주년 동창의 날 기념행사가 5월 31일(수) 12시 총장 초대 오찬과 낮 2시 동창의 날 기념식으로 마련되어 각각 학생식당과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새롭게 선임된 모교 김혜숙(영문 76) 16대 총장과 동창들의 첫 만남이라는 점에서 더욱 뜻깊었다. 아침 일찍부터 대형버스를 타고 대강당 주차장에 도착한 국내 지회 동창들은 녹음이 가득한 캠퍼스를 보며 반가운 탄성을 쏟아냈다. 그런가 하면 교정 곳곳에서는 동창들이 삼삼오오 모여 푸르른 모교를 배경으로 연신 셔터를 누르며 사진을 찍느라 분주한 모습이었다. 오랜만에 선후배, 동기들을 만난 동창들은 눈부시게 빛나는 5월의 모교에서 학창 시절의 추억을 더듬으며 행복하고 즐거운 축제를 즐겼다.

#### “모교의 발전이 자랑스럽고, 새롭게 거듭나는 이화 되기를”

12시 학생식당에 마련된 총장 오찬에 초대된 졸업 50주년(1967년 졸업)과 졸업 30주년(1987년 졸업) 동창들은 뷔페식 점심식사를 즐기며 정다운 이야기꽃을 피웠다.



졸업 50주년 재상봉 동창들이 모인 곳에서는 수십 년 만에 만난 동창들 간에 반가운 인사와 포옹이 이어졌다. “오랜만에 모교에 와서 발전한 모습을 보니 자랑스럽다”고 소감을 밝힌 김재순(생명 67) 동창은 “이번 행사를 통해 50년 만에 귀국한 친구와 해후하게 되어 정말 반가웠고, 친구의 귀국을 계기로 9명 동창들이 후쿠오카로 여행도 다녀왔다”며 “만남의 자리를 마련해준 총동창회와 모교에 고맙고 이화인이어서 행복하다”는 감사인사를 잊지 않았다. “1967년 졸업 동기들과 지난 50년간 꾸준히 모임을 가져왔다”고 소개한 남수자(약학 67) 동창은 “지난달에는 동창들 40명이 제주도 여행을 다녀와 관계가 더욱 돈독해졌다”며 뿌듯한 미소를 보였다.

한편 ‘올해의 이화인’(1987년 졸업)으로 추대되어 분홍치마에 하얀 저고리를 곱게 차려입은 48명의 동창들은 학생식당 한가운데 마련된 자리에 앉아 오찬 모임을 더욱 빛내며 동기들과 친지들의 축하를 받느라 여념이 없었다. 손희정(독문 87) 동창은 “어머니(정명숙, 화학 59)에 이어 ‘올해의 이화인’으로 추대되어어서 어머니께서 굉장히 자랑스러워하셨다”며 기뻐했고, 최은영(물리 87) 동창은 “물리학과 동창들이 오늘 이 자리에 많이 참석해서 내 일처럼 기뻐해 주었다”며 환한 미소를 보였다. 박향숙(섬예 87) 동창도 “친구들의 축하를 한 몸에 받았다”며 기쁘고 영광스럽다고 말했다.

졸업 30주년 재상봉 동창들이 모인 학생식당 곳곳에서도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달려가 얼싸안는 모습이 연출되었다. “학생식당에 모여 식사를 하게 되다니 감개무량하다”고 말문을 연 우선희(가관 87) 동창은 “모교가 이번에 힘든 일을 겪었는데 이를 계기로 이화동창뿐 아니라 재학생 모두 이화를 사랑하는 마음이 크다는 것을 느꼈다”고 감회를 밝혔다. 또한 최희숙(행정 88) 동창은 “총장님의 새롭게 선출된 것을 계기로 고통을 이기고 더욱 성장한 모습으로 예전 이화의 기본정



오랜만에 모인 졸업 50주년·30주년 재상봉 동창들

신과 명예를 되찾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학생식당에서 치러진 총장 초대 오찬은 총동창회의 정준순(약학 72) 부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성혜옥(영문 70) 총동창회 선교부장의 식전기도로 시작되었다. 정준순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1년 어렵고 힘들었지만 동창들의 사랑과 관심으로 꾹꿋이 총동창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동창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는 당부의 말을 잊지 않았다.

#### “또 다른 출발점에 선 이화를 동창 모두가 응원하고 지지하는 뜻깊은 자리”

오후 2시부터는 이화 창립 131주년 동창의 날 기념행사가 총동창회 주관으로 모교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는 김영주(교육 71) 총동창회장을 비롯, 정의숙 전 이화학당 이사장, 윤 후정 전 명예총장, 장명수 이화학당 이사장, 김혜숙 모교 총장과 선후배 동창 및 ‘올해의 이화인’으로 추대된 동창과 졸업 50주년·30주년 재상봉 동창 및 그 친지들이 참석한 가운데 1부 동창의

김영주 총동창회장(왼쪽)과 김혜숙 모교 총장



날 기념식과 2부 ‘올해의 이화인’ 추대 및 합창제로 나눠 성대하게 치러졌다.

한숙영(제약 79) 문화부장의 사회로 진행된 1부 기념식은 찬송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제창, 성혜옥 선교부장의 기도, 김영주 총동창회장의 인사말로 이어졌다.

성혜옥 선교부장은 기도를 통해 “우리 안의 모든 상처들을 보



재상봉 동창 대표 민경자(50주년) · 이승희(30주년) 동창(왼쪽부터)

리는 아프게 반성을 했고 이화 구성원 간의 소통의 중요성을 깨달았으며, 창립 아래 처음으로 총장 직선제를 치러 오늘 새로 선출된 모교의 김혜숙 총장님과 함께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고 소회를 밝힌 후, “오늘 기념식은 전환점에 선 이화, 또 다른 출발점에 선 이화가 첫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을 동창 모두가 응원하고 지지하는 뜻깊은 자리라는 점에서 감회가 새롭다”는 말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서 김영주 총동창회장은 “이화의 첫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육으로 사람을 이롭게 하며 나눔과 섬김, 통사라는 진선미 정신을 이웃과 세상에 돌려주는 일과 여성의 권익 신장에 앞장섰던 것”이라며 “이제 이화의 새 출발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강건하고 아름다운 이화의 첫 마음을 돌아보며 진선미 이화의 정신을 이웃과 세상에 돌려주는 일에 다시 노력함으로써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이화와 이화동창들이 될 수 있기를 염원한다”고 간절함을 담아 말했다. 그리고 “총동창회는 131년 동안 내려온 이화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이화를 응원할 것”이라며 “이화동창 여러분도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이화를 위해 한마음으로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듬고 싸매어 오늘의 합창처럼 하모니를 이루게 하셔서 이화로 인한 감사와 자부심과 감격이 살아나게 해주시고, 이화라는 배움터에서 변하지 않는 이화의 정신 안에 선후배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였다.

이어 무대에 오른 김영주 총동창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몇 개월간 이화는 창립 이래 가장 힘든 시련을 겪었고, 그 과정에서 우

(위) 장명수 이사장, 윤후정 전 명예총장, 정의숙 전 이사장(왼쪽부터)

(아래) 윤순희·김순영·조종남 고문(왼쪽부터)



### ‘빛나는 이화인’ 상 시상과 ‘올해의 이화인’ 48명 추대

다음 순서로는 지난해에 이화 창립 130주년을 기념하며 처음 제정되어 올해로 두 번째를 맞는 ‘빛나는 이화인’ 상에 대한 시상식이 있었다. 올해 수상자로 선정된 박종애

(물리 87) 동창은 현재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상무이사이자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모바일헬스센터 연구개발 팀장으로 활동하며 사회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이어서 ‘올해의 이화인’으로 추대된 48명을 대표하여 우숙영(피아노 87) 동창에게 ‘올해의 이화인’ 증서를 수여했고, 대강당에 모인 ‘재상봉 동창’들에게 총동창회에서 제작한 기념품을 일일이 전달하며 정감을 나눴다.

졸업 50주년 대표 민경자(수학 67) 동창과 졸업 30주년 대표 이승희(피아노 87) 동창은 재상봉 동창을 대표하여 인사말을 하였다. 두 동창들은 인사말을 통해 각자 학창 시절을 떠올리며 잊을 수 없는 추억들을 소개했다.

민경자 동창은 “70여 년을 사는 동안 내 인생에서 큰 힘이 되어준 이화를 선택한 것이 가장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말하며 “힘과 용기를 얻어가는 시간이었던 채플을 잊을 수 없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100세 시대인 지금, 70대인 우리에겐 아직 30년이 더 남아 있으니 이화가 각종 사업으로 우리 동창들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찾아가서 손을 내밀고 이화인으로서 향기를 풍기며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말로 마지막 인사를 대신했다.

이승희 동창은 자신이 가장 존경하는 스승 윤보희(음악 43) 교수와의 추억을 소개했다. 피아노과 명예교수인 윤보희 교수는 음악대학의 발전과 후진양성에 힘썼으며 모교 문리대학장을 지낸 고 현영학 교수의 부인이기도 하다. 이승희 동창은 “선생님은 제 생애의 귀감이시며 언행일치의 고귀한 인격과 남편 현영학 선생님에 대한 헌신적인 사랑을 온몸으로 보여주신 분”이라고 소개

한 뒤 “이런 소중한 분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과 이화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이화인으로서의 책임을 알고 더욱 소중히 이화를 마음속에 간직하겠다”는 말과 함께 끝으로 “이화여! 영원하라”를 외쳐 큰 박수를 받았다.

이어서 16대 모교 총장에 선임된 김혜숙 총장의 인사말이 있었다. 김 총장은 “제가 꿈꾸는 이화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이화”라고 말문을 연 뒤 “독특한 특성을 지닌 이화여대가 과연 앞으로 여자대학으로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과연 어떤 대체 전략을 취할 것인가의 문제는 공동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중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화는 지금까지 남이 가지 않았던 길을 걸어왔고 앞으로 가야 할 길 역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이라고 말한 뒤, “이화가 세상

우숙영 동창에게 ‘올해의 이화인’ 증서를 전달하였고(사진 위), 박종애 동창에게 ‘빛나는 이화인’ 상패를 전달했다





'올해의 이화인' 추대식과 임희영 동창의 축하공연(사진 오른쪽)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은 대형 여자 종합대학으로서 살아남기 위해, 이른바 명품 대학으로서의 이화, 명문 여대로서의 이화의 모습을 계속 유지하고 그 가치를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다른 대학들이 취하지 않은 독특한 전략들을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어서 “21만의 이화동창 여러분이 세계 곳곳, 중요한 자리에서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동창들의 저력이 그만큼 엄청나다는 사실을 잘 안다”며 “제가 이제부터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은 이화의 이 많은 좋은 자산들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겨 있는 이화에 대한 사랑과 불같은 에너지를 끌어올려서 이화가 앞으로 비상할 수 있는 추진력을 삼고자 하는 것”이라는 말로 신임 총장으로서의 포부를 밝혔다.

### **‘올해의 이화인’ 입장으로 축제 분위기 고조**

곧이어 각 과를 대표하여 ‘올해의 이화인’으로 추대된 48명 동창들이 국악 반주에 맞춰 입장하는 것을 시작으로 2부 행사인 ‘올해의 이화인’ 추대식과 합창제의 막이 올랐다. 이번 순서의 사회를 맡은 허현미(체육 89) 회우부장이 단상에 오른 48명 ‘올해의 이화인’들을 한 명 한 명 호명하며 소개하자 축하객들의 환호와 박수갈채가 쏟아졌고, 48명 동창들은 환한 미소가 담긴 감사 인사로 화답했다. 이어 김영희 무용과 교수의 안무지도를 받은 임희영(무용 00) 동창의 화려한 부채춤 축하공연이 있었다.

축하공연에 이어 합창제가 치러졌다. 해마다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는 팀들의 참여로 인기를 더해가는 합창제는 동창의 날 기념식의 하이라이트로서 없어서는 안 되는 순서로 자리 잡았다. 총 9개 팀이 참가한 올해의 합창제는, 검은 티셔츠에 컬러풀한 타이를 매고 등장해 잔잔한 하모니로 <사랑으로>를 부른 대구 지회(대표: 김명옥(서양 86), 지휘: 김미(성악 90), 반주: 차명희(정외 96))를 시작으로, 쾌활하고 빠른 템포의 춤곡인 <트리츠 트라츠 폴카>로 분위기를 리드한 천안 지회(대표: 백영순(생명 81), 지휘: 이송매(교대원 85), 반주: 박미애(독문 87)), 노르웨이 출신의 작곡가

올라 일로의 곡 <The Ground>의 신비롭고 몽환적인 화성을 잘 살려 부른 사범대학(대표: 신경희(수교 77), 지휘: 이명옥(영교 78), 반주: 이아람(피아노 01)), 84세 드럼 연주자(김옥분, 법학 57)의 협연으로 <아름다운 강산>을 불러 평균 75세라는 나이를 무색하게 한 법과대학(대표: 이명숙(법학 86), 지휘: 최양숙(법학 70), 반주: 오정순(법학 72)), 우리에게 익숙한 팝송 <Pokarekare Ana>와 <버터플라이>를 불러 옛 추억에 젖게 한 조형예술대학(대표: 봉지희(섬예 85), 지휘: 김세희(대학원 재학 중), 반주: 조민지(대학원 17)), 경쾌한 분위기의 <Sing Sing Sing>을 부르며 파란 챙모자를 머리 위로 높이 던지는 퍼포먼스로 노래의 마지막을 장식한 자연과학대학(대표: 권오향(수학 78), 지휘: 정혜진(철학 14), 반주: 권예린(대학원 재학 중)), 아름답고 웅장한 성가곡 <I Love You Lord>와 <이 땅에 평화를 이루자>로 사랑과 평화를 노래한 사회과학대학(대표: 한인영(사복 72), 지휘: 최수자(사복 67), 반주: 박지윤(종음 94)), 연탄곡 반주에 맞춰 당당하고 씩씩한 행진곡 <십자가 군병>을 부른 대전 지회(대표 및 지휘: 정계숙(성악 82), 반주: 권현아(피아노 96), 정경철(피아노 88)), 그리고 재미있는 율동과 함께 <웃어요&노래하는 곳에>를 불러 관객들에게 웃음을 선사한 약학대학(대표: 박하영(약학 77), 지휘: 김소희(성악 01), 반주: 한정원(종음 87))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번 참가팀들은 뛰어난 합창 실력을 물론 갖가지 율동과 개인기로 관객들에게 감동과 웃음을 전하며 흥겨운 무대를 선사했다.

이어 음악대학의 합창팀 이음회(대표: 이선희(성악 76), 지휘: 황선미(피아노 93), 반주: 곽예림(건반 12))가 특별 출연하여 스페인의 플라멩코 춤곡인 <El Vito>를 불렀다. 템포에 맞춘 절도 있는 박수와 아름다운 화성이 돋보인 이음회의 합창은 프로다운 하모니로 좌중을 압도하며 관객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합창제 심사위원장을 맡은 모교 음대의 박신화 교수는 “굉장히 기분 좋은 상을 모두에게 드리겠다”는 재미있는 심사평과 함께 윤명자(성악 80)·김은희(성악 95) 교수와 머리를 맞대고 심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오늘의우수상(대구 지회), 대한민국상(천안 지회), 대상(사범대학), 세계최고상(법과대학), 우리나라최고상(조형대학), 대통령상(자연대학), 그랑프리(사회대학), 총장상(대전 지

합창제 심사를 맡은 박신화 교수(왼쪽), 합창제 시상(오른쪽)





1. 대구 지회 2. 약대 3. 대전 지회 4. 사과대 5. 법대 6. 자연대 7. 조형대 8. 사범대 9. 천안 지회

회), 이화인상(약학대학) 등 갖가지 명칭으로 각 팀이 호명될 때마다 관객들은 큰 박수갈채로 기쁨을 함께 나눴다.

시상식이 끝나고 동창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교가를 부르며 다시 한 번 이화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사랑의 마음을 확인했고, 총동창회에서 마련한 기념품을 받아들고 다음해를 기약하며 아쉬운 작별인사를 나눴다. 총장 공관 뒤플로 자리를 옮긴 ‘올해의 이화인’은 다과를 나누며 행사를 마무리하였다.

한편 50주년 재상봉 동창 중 불문과 동창 다수와 독문과 동창 15명이 각각 500만 원과 225만 원의 특별기부금을 마련하여 총동창회에 전달하였다. 50주년 재상봉 동창인 이들은 “졸업 50주년을 축하하는 동시에, 건강한 몸으로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한다”며 “모교 총동창회에서 뜻깊은 행사를 마련해 주어 더욱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총동창회는 그 뜻을 받들어 동창들을 위한 행사에 이 특별기부금을 소중하게 쓸 예정이다.

글·이영희(사학 88, 홍보부장), 정진숙(행정 89, 이화동창 편집위원)



아령당 앞마당에서 김영주 총동창회장, 김혜숙 총장, 한종임 전 모교 대외협력처장(왼쪽부터)과 기념촬영을 한 올해의 이화인

## 2017 올해의 이화인(1987년 졸업)

과(학부) 순서로 계재



이호정(중문)  
전 중어중문학과 동창회장



배윤경(불문)  
아이준발달연구소 소장  
(소아재활치료 센터)



손희정(독문)  
전업주부



한은주(기독)  
사회복지법인 새길 공동체  
성·가정 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원장 역임



김점숙(사학)  
명지대  
방목기초교육대학 교수



윤경혜(정외)  
JTBC PLUS트렌드 총괄 전무  
겸 허스트 중앙 대표



박상금(행정)  
(주)이알에이코리아(ERA  
KOREA) 전무이사



손경애(문정)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보호부 부장



김세영(커미부)  
갤러리로얄 대표



강미영(사회)  
전업주부, 자원봉사자

**김혜영(사복)**

수원과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오승민(심리)**이대목회상담센터 연구원,  
ISST 회원,  
샤론정신건강연구소 실장**이정민(경제)**

중앙SUNDAY 편집국장

**최진(수학)**

메이린 주식회사 이사

**최은영(물리)**송파구 구의원,  
민주평통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조혜성(화학)**

LG화학 기술연구원 상무

**김용연(생명)**국립암센터 이행성 연구부장,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멘토**조호경(컴공)**이화여대, 한국체대,  
한양여대, 수원과학대 출강**우숙영(피아노)**피아니스트, 숙명여대  
페다고지 대학원 외래교수**최연수(관현)**플루티스트, EBS 클래식  
음악감독, Luce Entertainment  
(공연기획) 대표**이소연(성악)**(주)에프앤씨 오브엠 부사장,  
소롭티미스트 서서울클럽 총무**한은미(종음)**

한양대 음악대학 객원교수

**박신숙(서양)**

화가

**주이향(조소)**

남서울대, 신구대 외래교수

**박향숙(섬예)**

섬유작가

**김곡미(생미)**연암대 교수,  
대한민국 초대작가**제승모(장미)**American Dream Clothing  
대표**이연수(무용)**동덕여대 교수,  
(사)메이드인댄스예술원 대표**양선희(교육)**

소설가, 중앙일보 논설위원

**장태옥(유교)**

천사유치원 원장



**김명희(초교)**  
운현초등학교 교장



**권미경(교공)**  
신한은행 PWM Privilege  
강남센터장



**김은경(특교)**  
서울인강학교 교사



**유명순(영교)**  
한국 씨티은행 수석부행장



**전혜준(불어교육)**  
모스크바 국제 여성회 행사  
담당



**정은주(사회과교육)**  
한국표준협회  
자격 인증교육센터장



**김선우(과교)**  
개국약사



**인형덕(융합보건)**  
식품 전문 Product  
Management, 선교교회 집사



**양정숙(법학)**  
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이은경(경영)**  
한민내장(주),  
제성내장(주) 대표이사



**고인미(국제사무)**  
고인미 미국공인회계사무소  
(Inmee Go CPA) 개업 중



**이창옥(의학)**  
의료선교사



**현석경(간호)**  
이대목동병원 간호과장



**강혜영(약학)**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  
약학대학 교수



**유희원(제약)**  
부광약품 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김미양(가정관리)**  
수산원 원장,  
신성자동차(주) 감사,  
한국솔라에너지 대표이사



**이미숙(의직)**  
전남대 의류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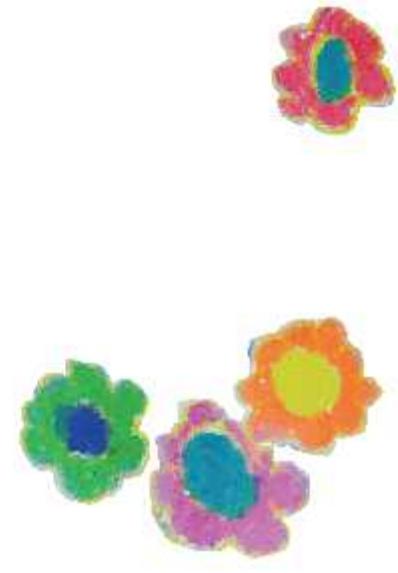
**석재민(식영)**  
(주)인터컴 부사장,  
경희대 컨벤션경영학과  
겸임교수

## 제6회 이화가족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 동심으로 그려낸 이화의 봄



모교에서 즐기는 동심의 축제 한마당, 제6회 ‘이화가족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가 5월 13일(토) 오전 10시부터 모교 교정에서 열렸다. 이 행사는 이화동창의 자녀나 손자손녀, 모교 교직원 자녀 중 유치원 및 초등학교 3학년까지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며, 사전 인터넷 접수를 한 결과 212명(유치부 94명, 초등부 118명)으로 조기에 마감되어 대회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지난해 대회는 대강당 사정상 9월에 치렀으나 올해는 예년처럼 놀음이 짙푸른 5월 동심의 계절에 치러진 만큼 그림의 제목도 계절의 여왕 5월에 어울리는 ‘봄·봄·봄’이었다.



### 엄마 아빠와 즐기는 5월의 잔치

오전 10시 접수 시작 전에 접수대 문을 두드린 첫 참가자는 한유준(유치부) 어린이와 엄마 박소연(독문





5월의 이화 캠퍼스를 마음껏 즐긴  
그림그리기 대회 참가자들

07) 동창이었다. “여섯 살인데 첫 참가예요. 어찌나 설레는지 일찍 집을 나섰어요” 라며 엄마와 아이 모두 들뜬 표정이었다. 두 번째 접수를 한 사람은 하연호(유치부)·하은호(초등부) 어린이와 엄마 권선미(경영 04) 동창. 권 동창은 “대전에서 오느라 서둘렀더니 일찍 왔어요. 큰 아이는 벌써 네 번 째 참가예요. 친구 아이랑 같이 신청

했는데 애들이 엄마 학교에서 열리는 대회라고 무척 좋아해요. 오랜만에 친구도 만나고 애들이랑 모교도 둘러볼 예정이에요”라며 환한 얼굴이었다.

이 대회는 가족끼리 혹은 친구끼리 참가 신청을 한 경우가 유독 많았는데 이진모(유치부)·이태린(초등부) 어린이의 엄마 이수연(법학 03) 동창과 박리온(유치부) 어린이의 엄마 이지은(법학 03) 동창도 법대 98학번 동기였다. “동기들이 많이 참가했어요. 친구도 만나고 애들도 햅볕 좋은 날 싱그러운 교정에서 그림을 그릴 수 있으니 이보다 좋은 기회가 또 있겠어요”라고 입을 모았다. 차재은(유치부) 어린이와 엄마 임정연(시각디자인 07) 동창, 조혜니(유치부) 어린이와 엄마 박영천(법학 11) 동창은 남편이 같은 직장에 다녀 같은 사택, 같은 직장 어린이집을 다니는 사이인데 이번 대회도 함께 참가 신청을 했다고 즐거워했다.

온 가족이 행사에 참석한 이화가족도 많았다. 박주원(초등부) 어린이와 할머니 정춘희(약학 72) 동창은 작년에 이어 3대가 이날 행



사를 즐기러 왔다. 이희윤(초등부) 어린이와 엄마 이미성(초교 98) 동창도 온 가족이 함께 왔고, 김은채(초등부) 어린이와 엄마 김도연(법학 99) 동창도 가족이 함께였다. 엄마 단현주(한음 07) 동창 및 가족과 함께 참석한 박준우(초등부) 어린이는 “엄마 학교 가 예뻐요”라며 눈이 휘둥그레졌다.

모교 교정에 자리를 잡고 그림을 그리다가, 꽃 내음을 맡기도 하고, 간식을 즐기거나 사진을 찍으며 5월의 이화 캠퍼스를 마음껏 즐기는 참가자들의 모습이 즐거워 보였다. 특히 접수대 한쪽에 마련한 풍선 아트 코너는 줄이 끊이지 않을 정도로 아이들의 큰 사랑을 받았는데, 풍뎅이와 나비, 칼 등 아이들이 원하는 모양이 전부 개성이 강하고 제각각이라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는 것도 신기하고 재미있었다.



### 어린이 모두가 주인공인 대회

약 두 시간가량 그림을 그린 아이들은 12시부터 그림을 접수하고 총동창회에서 마련한 도시락으로 점심을 즐긴 뒤 오후 2시에 대강당에 마련된 시상식장으로 모였다. 허현미(체육 89) 회우부장의 사회로 열린 시상식에는 김영주 총동창회장과 모교 영상디자인전공 최유미(생미 85) 교수, 유아교육과 홍용희(유교 78) 교수, 전 이대부속초등학교 미술교사 안지영(섬예 02) 동창을 비롯한 심사위원과 총동창회 임원진, 대회에 참가한 212명의 어린이와 그 가족들이 참석했다.

김영주 총동창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갑자기 날씨가 비가 올 것처럼 어두워졌는데도 끝까지 열심



1. 그림을 제출하고 총동창회가 준비한 도시락을 받고 있다
2. 꼼꼼히 어린이들의 그림을 살피는 심사위원들
3. 최유미 심사위원장
4. 김영주 총동창회장

# 회 이화가족 어린이 그림그리기

일시: 2017년 5월 13일(토) 오전 10시~ 오후 3시 / 장소: 이화교정, 대강당

후원: 주)모나미, 주)크라운 해태제과

주최: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1



2



3

부문별 상을 골고루 나누어 수상한 참가 어린이들(사진 1, 2, 3)

(주)크라운해태제과에서 제과세트(사진 4, 5)를, (주)모나미에서 어린이 종합 문구세트와 크레파스를 협찬해 주었다(사진 6, 7)



4



5

6

7

히 그림을 그려준 어린이들에게 감사한다”며 “열심히 참여한 모든 어린이에게상을 드릴 것”이라고 말하였다. 심사위원장 최유미 교수는 “봄을 물씬 느낄 수 있는 그림도 있고, 전체 윤곽을 보며 크게 그린 그림도 있고, 가족이나 꽃과 나무를 자세하게 표현한 그림 등 모든 그림이 개성이 있고 얼마나 즐겁게 그렸는지 알 수 있다”며 “남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만의 개성을 키워 나가다 보면 더 많은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참가한 어린이들을 격려하였다.

총동창회는 2년 전부터 참가한 어린이 모두에게 상을 수여하기로 하여 이번에도 ‘표현력이 뛰어난 상’, ‘창의성이 돋보이는 상’, ‘성실성이 묻어 있는 상’, ‘즐거움이 가득한 상’, ‘공간감이 좋은 상’을 유치부와 초등부 부문에서 5명씩, 총 50명의 어린이에게 수여했고, 부문별 상을 받지 못한 어린이 전원에게 ‘행복가득상’을 수여해 참가한 어린이 모두 수상 여부에 관계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행사를 즐기도록 배려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참가한 어린이 모두를 무대로 불러 따로 앉혀 행사의 주인공으로서 시상식을 즐길 수 있게 하였는데, 엄마 아빠 품을 떠난 어린이들이 의젓하게 행사를 즐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이 행사를 위해 (주)모나미에서는 어린이 종합 문구 세트 50점과 모나미 36색 크레파스를, (주)크라운해태제과에서는 제과세트를 협찬해 주었다.

글·이영희(사학 88, 홍보부장)

## 이화가 세계 복의 근원이 되기를 기도하며

이화창립 131주년 감사찬양예배가 5월 16일(화) 오후 4시 이화·삼성교육문화관 806호에서 열렸다. 총동창회 선교부 주관으로 열린 1부 예배는 성혜옥(영문 70) 선교부장의 사회로 시작되어, 김미순(기독 75) 전 선교부장의 기도와 김영주(교육 71) 총동창회장의 창세기 32장 24-28절 봉독, 총동창회 선교부 중창단(지휘:김은경(성악 64), 반주:왕승희(피아노 73))의 <내 목자는 사랑의 왕> 찬양으로 이어졌다. 이 자리에

서 양명수 전 교목실장은 '야곱의 씨름'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야곱이 신앙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과 사람이 되고 이스라엘의 복의 근원이 되었듯, 이화도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해 우리나라와 세계의 복의 근원이 될 수 있기를" 당부했다. 이어진 동영상 <이화의 뿌리를 찾아서>는 53세의 나이에 선교사로 파송되어 이화를 일군 스크랜튼 여사의 발자취를 좇는 여정을 통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화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다.

2부 '감사 찬양의 시간'은 허성희(성악 87) 동창의 사회로 시작되었다. 첫 순서로 무대에 오른 창단 30주년의 법대 합창단 37명은 평균 연령 75세로, <죄짐 맡은 우리 구주>를 힘차게 찬양했다. 이어서 조형예술대 합창단이 무대에 올라 <사명>이라는 찬양을 불렀고, 아프리카 팀이 나와 <Lord I Lift

Your Name On High>, <How Great Is Our God>을 아카펠라로 찬양했다. 아프리카 팀은 나이지리아, 말라위, 탄자니아, 우간다, 가나, 부룬디 등 아프리카 6개국에서 이화에 유학 온 학생들 8명이다. 이들은 국제협력개발, 대기공학, 국제관계, 합창 지휘 등을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으며, 'Ewha-Africa'라는 동아리를 만들어 한 달에 한 번 기도모임을 하고 있다.

이어 관현악 4중주단 동아리 'Music For You(조민지(피아노 15),

진은애(관현 15), 이정은(관현 16), 최윤나(관현 16))'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라는 두 곡을 연주하였으며, 이 동아리의 이정은 동창은 <이화와 나, 그 사명을 기억하며>란 제목의 간증을 하였다. 마지막은 '노래선교단(지휘: 강은총(성악 14), 반주: 김소현(피아노 16))'의 <그 사랑 난 이제 알았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의 찬양으로 막을 내렸다.

이어서 이화의 회복과 총장 선출을 위한 신미선(서양 85) 조형예술대 선교부장의 기도와 이화의 선교사명과 동창 선교사들을 위한 오은주(영문 74) 선교사의 기도 후 참석자들은 주기도문송을 다 같이 부르며 감사찬양예배를 마쳤다.

글·성혜옥(영문 70, 선교부장)



# 총동창회

## 소식

### 모교 총장 첫 직선제에 총동창회 선거인단 1,020명 참여

이화 창립 131년 역사상 처음으로 제16대 모교 총장이 직선제로 선출되었다. 5월 2일(화) 8명의 총장 후보자(김혜숙(영문 76), 강혜련(경영 80), 이공주(제약 77), 김경민(컴공 89), 김성진(화학 81), 최원자(생명 79), 김은미(사회 81), 이향숙(수학 86), 이상 기호순)가 등록한 가운데(김경민 후보 중도 사퇴), 5월 22일(월) 사전 투표, 24일(수) 1차 투표, 25일(목) 결선 투표 끝에 철학과 김혜숙(영문 76) 교수가 제16대 총장으로 선출되었다. 총장 직선제는 제10대 총장 선출 이후 모교 역사상 최초이며, 제10대 총장의 경우도 교수들만이 투표하는 직선제였던 데 반해 이번 선거는 교수, 직원, 동창, 학생 등 교내 4단위 구성체가 모두 참여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번 선거는 교수, 직원, 학생은 전원 1인 1표를 행사했지만, 동창의 경우 21만 명이 모두 참여하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어, 4자협의체의 합의에 따라 동창의 경우만 간선제로 시행하고, 그 방식은 총동창회에 일임하였다. 총동창회는 동창회 회칙 2장 4조에 해당하는 모교 졸업생(교수, 직원, 학생 단위 선거권자 제외) 중 각 과 동창회장들에게 재량 위임하여 선출 또는 지원한 1,020명으로 참여했다.

2017년 1월 16일(월) 교수평의회에서는 동창을 배제한 교수, 직원, 학생으로만 선거인단을 구성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총동창회는 14대·15대 총장 선출(간선제) 시 동창이 참여했던 전례를 들어(동창의 지분 참여율 각각 8%, 5.7%) ‘총장 직선제 선출에 관한 총동창회의 의견’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였다. 이에 이사회는 동창을 넣어 교수:직원:학생:동창의 선거인단 비율을 82.6%:9.9%:5.0%:2.5%로 규정을 만들어 공표하였다. 그러나 이 비율에 대해 직원과 학생이 동의하지 않아, 이사회는 4자협의체를 구성하여 규정과 비율을 합의 조율할 것을 권유하였고, 2월 9일(목)부터 각 단위의 대표 2명이 모인 4자협의체가 구성되어 14차례 회의를 진행하였다.

#### 2%의 비율 아쉽지만 모교를 지지하기로

4자협의체에서는 10개의 쟁점 중 9개는 합의하였으나, 비율 부분만은 끝내 합의하지 못하고 이사회에 안건을 넘겼고, 이에 이사회는 4월 14일(금) 교수:직원:학생:동창의 선거인단 비율을 77.5%:12%:8.5%:2%로 결정하고, 각 단위는 이를 수용하기로 함에 따라 4월 21일(금) 선거관리위원회가 발족되었다. 동창 대표 선관위원회으로는 4자

협의체 회의 때부터 동창 대표로 참석한 총동창회 안영호(중문 85) 서기와 한미경(물리 88) 서기가 추천되었다.

이 과정에서 동창 선거인단의 비율이 1월 이사회 권고안 시 2.5%였으나, 4월 14일(금) 이사회의 결정에서 직원은 8%에서 12%로, 학생은 5%에서 8.5%로 상향 조정된 반면, 동창은 2%로 하향 조정된 데에 내부적으로 반발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총동창회는 최대한 학교에 협조하고 4자협의체의 원만한 합의 도출에 최선을 다했음에도 오히려 2%로 낮아진 부분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며 4월 20일(목) ‘각 과(학부), 대학(원), 지회장 초청 간담회’에서 투표를 실시하여 동창들의 의견을 물었다. 그 결과 동창 지분의 비율이 타 단위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미미하나 모교의 일에 적극 동참하고 이를 지지하자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아, 결국 아쉽지만 2%의 비율을 받아들여 총장 직선제에 참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 동창 대상 정책토론회 진행

5월 11일(목) 4시 이화·삼성교육문화관 806호에서 한숙영(제약 79) 문화부장의 사회로 ‘동창 대상 정책토론회’가 4단위 구성체 중 가장 먼저 열렸다. 급히 잡힌 일정이었음에도 190여 명의 동창들이

홀을 가득 메워 이번 총장 선거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총동창회는 후보자들에게 미리 사전 질문지를 보내 중요한 질문 네 가지를 미리 답변 받아 참석자들이 후보자들의 정책을 비교 가능하도록 유인물로 제공하였고, 그 내용은 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또한 현장 질문은 사전에 동창들에게 의견을 묻고 이를 임원회의에서 선별하였는데, 돌발 상황에서 후보자들이 얼마만큼 유연하게 대처하는지 알 수 있거나, 또는 민감한 사안들을 거리낌 없이 질문하여 후보자들의 솔직한 심정을 즉각 짚어 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타 단위의 정책토론회와 달리 현장 질문을 모두 카드로 만들어 사회자가 일괄 질문함으로써 시간을 절약하였고, 8개의 질문에 대해 8명의 후보자가 네 차례의 기회를 갖도록 공정하면서도 원활한 진행과 시간 안배를 하였다. 특히 후보자들 앞에 모니터를 놓아 남은 시간을 알려주고, 후보자들이 정해진 대답 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는 방식은 타 단위에서도 채택할 정도로 호평을 받았다. 동창 대상 정책토론회는 참관한 선관위원들에게서 가장 모범적이고 공정한 진행이라는 평가와 함께 질문이 예리하면서도 재미 있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선거에서 타 단위는 학내 구성원이라 참여가 용이하였으나, 동창은 시간과 거리의 제약이 있어 참여가 쉽지만은 않았다. 그럼에도 동창은 77%의 투표율을 보였으며, 선거인단 명부의 부득이한 누락 사태를 감안하면 86.3%라는 놀라운 투표율을 기록하여 첫 총장 직선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 주었다.



## 각 과(학부) 및 대학(원), 지회 회장 초청 간담회

총동창회는 4월 20일(목) 오후 12시 이화·삼성 교육문화관 806호에서 ‘각 과(학부), 대학(원), 지회 회장 초청 간담회’를 열었다. 송은미(유교 85) 총무의 사회로 시작된 간담회는 성혜옥(영문 70) 선교부장의 기도에 이어 김영주(교육 71) 총동창회 장의 인사말로 이어졌고, 식사 후 참석자 소개에 이어 2017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우선 올해 창립 기념행사 시 총장 오찬 장소가 예년에는 지하 1층과 지하 2층으로 나뉘어 치러졌으나 지하 1층의 식사 공간이 강의실로 바뀌게 되어 올해부터 부득이 재상봉 동창 모두가 지하 2층에서 함께 식사하게 된다는 것을 공지하였다. 또 한 후원이사에 대한 안내와 함께 보다 많은 동창이 후원이사로 총동창회 일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이어 중요 안건으로 총장 직선제 선거와 관련한 안내와 설문 조사가 있었다. 총장 선거를 위한 4자 협의체(교수, 직원, 동창, 학생)의 대표로 선임된 총동창회 안영호 서기는 참석자들에게 4자협의체 구성과 14차례에 걸친 활동에 대한 경과보고를 하였다.(18p 참조) 직선제 선거에서 동창 지분율이 당

초 2.5%에서 2%로 하향 조정되었음을 보고하였으며, 그럼에도 총장 직선제에 동창들이 참여할 것인지에 대해서 참석자들의 의견을 물고 취합하는 시간을 가졌다. 비밀투표 결과 동창 지분의 비율이 타 단위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미미하나 모교의 일에 적극 동참하고 이를 지지하자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아, 총동창회는 이번 총장 직선제에 참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총동창회에서는 비록 미미한 지분율이지만 유효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선거인단으로 선정된 동창들은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투표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호소하였다.



## 4월 정기임원회에서 김순영 고문 연임 결정

4월 정기임원회가 4월 13일(목) 오후 2시 30분 이화·삼성교육문화관 804호에서 총 42명의 임원 중 참석 30명, 위임 6명으로 성원이 된 가운데 열렸다. 김영주 총동창회장의 개회선언에 이어 찬송가 405장을 부른 후 성혜옥(영문 70) 선교부장의 기도로 정기임원회를 시작해, 한미경 서기의 전회

의록 낭독에 이어 각 부 및 대학(원) 보고를 진행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먼저 지난 3월 11일(토)에 열린 ‘정기총회’에 대한 평가가 있었다. 김영주 총동창회장은 “올해는 바자회와 점심 제공이 없었는데도 200여 명의 동창이 참석하여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며 각 대학 회장들에게 감사를 표했고, 배혜화(불문 77) 지역부장은 “멀리 지회에서 온 동창에게 주차권을 판매하는 것이 죄송했다”며 이에 대한 개선책이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영주 총동창회장은 4월 20일(목)에 열리는 ‘각 과(학부), 대학(원), 지회장 초청 간담회’에 대해 안내하고 ‘올해의 이화인’ 추천서와 ‘빛나는 이화인’ 상 추천서를 기일 안에 제출해줄 것을 부탁했다. 또한 간담회에서는 제16대 모교 총장 선출에 관한 4자협의체 관련 보고가 있을 예정이니 회장이 불참할 시에는 공지사항 전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2명이 대리참석 해줄 것을 부탁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는 5월에 열리는 각종 행사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었다. 5월 13일(토)에 열리는 ‘제6회 이화가족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는 현재 신청이 마감되었음을 알리고 세부 논의는 5월 정기 임원회의에서 하기로 했다.

총동창회 선교부에서 주관하는 ‘감사찬양예배’는 5월 16일(화) 오후 4시에 동창회 회의실 806호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공지하였다. 김미순(기독 75) 전 선교부장은 ‘동창의 날’ 행사에 공연하는 대

학 합창단들은 찬양곡을 한 곡 더 준비하여 이날 함께해 줄 것을 부탁했다.

김영주 총동창회장은 5월 31일(수)에 열리는 ‘동창의 날’ 기념 합창제는 시간 관계상 10팀으로 제한한다고 설명하였으며, 세부 논의는 5월 정기임원회에서 한다고 공지하였다. 그리고 해외 지회에서 온 동창들을 위한 오찬 간담회가 6월 1일(목) 오후 12시 개최된다고 공지하였다.

기타 안건으로 김순영(약학 62) 고문 연임에 대한 비공개 투표를 실시한 결과 절대적인 임원들의 지지로 김순영 고문의 연임이 결정되었다. 이어 안영호 서기가 대학평의원회 운영규정에 대해 설명하고, 대학평의원회에 참여하는 동창의 자격, 추천 및 위촉에 관한 사항을 변경해줄 것을 건의해 임원 만장일치로 찬성·가결하였다. 또한 제16대 총장 선출을 위한 ‘4자협의체’ 동창 대표로 활동 중인 안영호 서기가 제16대 총장후보자 선출에 관한 4자 협의 내용을 설명하고 가장 쟁점인 선거인단 비율에 관해 원만한 조율이 이루어지질 못했음을 보고하였다. 간선제로 참여하는 동창 선거인단 구성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하기로 하였다.

## 5월 정기임원회에서 ‘빛나는 이화인’ 상 수상자 발표

5월 11일(목) 오후 2시 30분 이화·삼성교육문화관 804호에서 34명 참석, 위임 3명으로 성원이 된 가운데 5월 정기임원회가 열렸다. 안영호 서기의 전회의록 낭독에 이어 정영출(경영 75) 회계의 회계보고가 통과되었고, 지난 4월 20일(목) 열린 ‘각 과(학부), 대학(원), 지회 회장 초청 간담회’ 평가가 있었다. 김영주 총동창회장은 “4월 20일 간담회에서 동창의 선거인단을 총동창회 임원과 각 과

회장 99명으로 결정하였으나 선관위의 부탁으로 1,000여 명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하고 각 대학 및 과 회장들의 협력으로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잘 마무리된 것에 감사를 표했다. 또한 지회 회장들이 선거인단에 포함되지 못했는데 각 대학에서는 해당 대학 지회 회장을 파악하고 있어 달라고 당부하였다. 이어 5월에 치를 여러 행사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우선 5월 13일(토) ‘이화가족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는 212명(유치부 94명, 초등부 118명)으로 신청이 마감되었다고 알렸으며, 업무 분담표에 따라 행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임원들에게 부탁하였다. 또한 우천 시에는 행사를 대강당 안에서 진행한다고 설명하였다.

5월 16일(화) '감사찬양예배'는 오후 4시 동창회 회의실 806호에서 있다는 것을 재차 안내하였으며, 성혜옥 선교부장은 법대와 조형대학 동창합창단이 참여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김영주 총동창회장은 5월 24일(수) '제16대 이화여대 총장 선거'에 앞서 '동창 대상 정책토론회'가 5월 11일(목) 4시부터 진행된다고 알린 뒤, 미리 각 후보들에게 보낸 4개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검토하고 참석할 것을 당부하였다. 현장에서는 임원회의에서 결정한 8개의 비공개 질문을 각 질문당 4명의 후보가 답변하게 되나 즉문즉답의 형식으로 누가 답변을 하게 될지는 모른다고 설명

하였다. 선관위에서도 3명(교수 대표, 직원 대표, 법인 대표)이 참관한다고 말하였다.

이어 5월 31일(수) '동창의 날 기념행사' 건에 대한 공지가 있었다. 김영주 총동창회장은 지하 2층 학생식당에서 졸업 50주년 재상봉 동창, 졸업 30주년 재상봉 동창의 식사가 함께 있을 예정인데 장소가 협소하고 혼란이 예상되니 각 과 회장은 미리 와서 졸업 30주년과 50주년을 맞는 동창들에게 스티커를 붙여 드리고 지정된 자리로 안내해 줄 것을 부탁했다. 또한 다음날(6월 1일) 있을 예정인 '해외지회 동창 오찬 간담회'는 전년에 비해 참석 인원이 적을 것으로 예상돼 장소 변경을 고려 중이라고 설명하였다.

한편 '빛나는 이화인' 추천서를 마감한 결과 6명의 후보 중 1987년 물리학과를 졸업한 박종애(현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상무이사) 동창이 수상자로 선정되었음을 공지하였다.

## 5월 각종 행사 평가와 친목 다진 6월 정기임원회

6월 정기임원회가 24명 참석, 위임 9명으로 성원이 된 가운데 6월 8일(목) 오전 11시 한식당 지화자에서 열렸다. 성혜옥 선교부장의 기도, 한미경 서기의 전회의록 낭독에 이어 정영출 회계가 회계보고를 하였으며, 각 부 및 대학(원) 보고에 이어 5월에 치른 각종 행사에 대한 평가가 이어졌다.

먼저 5월 13일(토)에 있었던 '이화가족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는 날씨가 좋지 않은데도 212명의 많은 인원이 참석하였으며, 대강당 입실 전까지 비가 쏟아지지 않아 진행을 수월하게 할 수 있었던 점에 감사하였다. 또한 다음해부터는 참가상격인 '행복가득상' 수상 어린이에게도 상장을 수

여할 것인지 논의하기로 하였다.

5월 16일(화) '감사찬양예배'는 예년에는 중강당, 지난해에는 대강당에서 치른 데 비해 올해는 이화·삼성교육문화관 806호를 이용하다 보니 장소가 다소 협소했다는 아쉬움이 있지만, 학생 간증과 아프리카 팀 아카펠라 합창단의 공연이 감동적이라고 평가했다. 성혜옥 선교부장은 "감사찬양예배는 5월 창립기념 행사에 앞서 하나님께 올리는 감사찬양제의 의미를 담고 있다"며 각 대학 합창단에서 매년 두 팀 이상은 참여해줄 것을 부탁하였다.

5월 31일(수) '동창의 날' 기념행사에 대해서 김

영주 총동창회장은 임원들이 아침 9시부터 행사장 곳곳에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 노력해준 점에 감사 를 표하였다. 특히 “올해 졸업 50주년 재상봉 동창 중 불문과에서 500만 원, 독문과에서 225만 원을 총동창회에 후원금(특별기부금)으로 보내 주셨다”며 총동창회에서는 이를 총동창회 발전을 위해 귀중하게 사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9월 21일(목) 예정된 ‘대바자’에 대해 공지

하고 8월 31일(목)까지 모든 과에서 바자회 출품 품목을 결정해서 총동창회에 알려줄 것을 부탁하였으며, 9월 11일(월)까지 바자회 분담금 각 60만 원을 납부해줄 것을 덧붙였다.

기타 안건으로, 매년 동창의 날 기념식 이후 가졌던 ‘해외지회 동창 오찬 간담회’는 다음해부터는 정례화하지 않고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비정기로 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 선교부 소식

## 단기선교 환송예배

단기선교 환송예배가 총동창회 선교부 주관으로 6월 13일(화) 10시 30분 이대 다락방 전도협회 애찬실에서 있었다. 김은경(성악 64) 동창의 찬양과 성혜옥(영문 70) 선교부장의 사회로 예배는 시작됐다. 박은혜(특교과 선교부장) 동창의 기도 뒤에 선교부원들의 <내 목자는 사랑의 왕>이란 찬양이 이어졌고, <꿈과 짐>이라는 제목의 양현혜(기독 83) 교목의 설교는 많은 울림을 주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약속으로 자긍심이 급상승하였으나 예수님이 죽음으로 그 꿈은 그들에게 짐이 되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찾는다. 진정한 꿈을 발견한 자는 짐을 꿈으로 바꾼 이들이다. 꿈 너머에 있는 꿈을 꾼 이들이다. 선교라는 꿈을 꾸며 나가는 이들이여! 내 안의 이방인에게 골방에서 먼저 선교하라. 꿈은 영원하며, 짐은 잠깐이고 한계가 있다(요 14:15-21과 벤전 3:15-16)’는 말씀으로 선교라는 꿈을 안고 떠나는 후배들에게 권면과 깊은 묵상을 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었다. 이어서 김영주 총동창회장의 격려

말씀과 윤혜경(기독 76) 선교사의 권면과 충언은 선배로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도움이 되었다. 조형예술대 동창들이 현금송으로 부른 <사명>이라는 찬양은 떠나는 이들에게 사명을 더해 주었다.

2부에서는 김미순(기독 75) 전 선교부장의 사회로 떠나는 학생들의 자기소개와 기도제목들을 나누었다. 방문한 정송(의직 81, 케냐)·하윤희(경영 90, 베트남)·김혜경(인도)·홍수정(중문 93, 인도네시아)·이수옥(탈북민)·왕승희(피아노 73, 본부사역) 선교사들과 진솔한 나눔의 시간은 이화의 선교가 선배에서 후배로 맥을 잇는 현장이었다.

이어서 총동창회에서 제공한 뷔페를 점심으로 풍성히 나누었다. 여학생미래캠프, 선교장학생, IVF, YWAM, Music For You 등 동아리 22명과 그들이 떠날 국내 다문화 가정, 네팔, 중국, 캄보디아, 타이 지역에서의 안전과 꿈을 위한 기도를 하였다. 선교부에서는 작은 후원금과 가방, 티셔츠 등을 선사하며 지속적인 사랑과 관심으로 이화 안에서 선교로 계속 만날 수 있기를 당부했다.

# 축하합니다



졸업연도 순서로 계재

## 제16대 모교 총장에 선임된 김혜숙(영문 76) 동창

모교 철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김혜숙 동창이 모교 역사상 최초의 직선제 총장이 되었다. 김혜숙 동창은 5월 25일(목)에 진행된 결선투표에서 57.3%의 득표율로 1위로 선출되어 26일(금)에 열린 학교법인 이화학당(이사장 장명수)의 이사회에서 제16대 모교 총장으로 선임되었다. 취임식은 5월 31일(수) 이화 창립 131주년 기념식에서 있었으며, 임기는 2021년 2월까지다.

김혜숙 동창은 취임식에서 “이화는 지금까지 남이 가지 않았던 길을 걸어왔고 앞으로 가야 할 길 역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일 것”이라고 말한 뒤, “세상 어디에도 없는 이화를 만들기 위해 타 대학과는 다른 독특한 전략을 취하겠다”고 밝혔다.



김혜숙 동창은 모교 영문과를 졸업하고, 미국 시카고 대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은 뒤, 1987년 모교에 철학과 교수로 부임하여, 인문학연구원 원장(2002년~2004년), 스크랜튼대학 학장(2007년~2009년), 교수협의회 공동회장(2014년~2017년)을 역임하였다. 또한 한국인문학총연합회 대표회장, 한국분석철학회 회장 등을 역임한 바 있으며 현재 세계철학연맹(FISP) 운영위원, 국제여성철학회(IAPh) 이사를 맡고 있다.



## 전효숙(법학 73) 동창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장에 위촉

전효숙 동창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장에 위촉되었다. 전 동창은 2003년 8월 첫 여성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되었으며, 2006년 9월 퇴임 후 모교에서 법대 교수로 재직하며 법학전문대학원장 등을 지냈다.



## 신경림(간호 76) 동창 '황조근정훈장' 수훈

모교 간호대 교수 신경림 동창이 4월 7일(금) ‘제45회 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정부로부터 ‘황조근정훈장’을 수훈했다. 근정훈장은 공무원 및 사립학교의 교직원으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청조(1등급), 황조(2등급), 흥조(3등급), 녹조(4등급), 옥조(5등급)로 등급이 구분된다.



## 황은미(국제사무 77) 동창 **'제16회 유관순상' 수상**

커리어컨설턴트협회 회장인 황은미 동창이 '제16회 유관순상'을 수상하였다.

'유관순상'은 유관순 열사의 애국애족 정신을 기리고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한 여성이나 여성단체를 선발·시상하기 위해 충청남도와 이화여고 등이 2001년 7월 공동으로 제정한 상이다. 시상식은 5월 19일(금) 유 열사의 고향 충남 천안시 독립기념관에서 열렸다.



## 조현옥(정외 79) 동창 **청와대 인사수석 임명**

조현옥 동창이 현정 사상 최초의 여성 인사수석이 되었다. 조 동창은 국책연구 기관인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일했고,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상임대표 등을 지냈다. 보육, 저출산, 가족 등 여성 정책과 여성시민사회를 모두 경험한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 김경효(의학 83) 동창 **'한독 여의사 학술대상' 수상**

모교 의대 학장인 김경효 동창이 올해의 '한독 여의사 학술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제약회사 한독은 2010년부터 한국여자의사회와 함께 한국 의료계 발전에 공을 세우고, 의료인의 명예와 위상을 높인 여의사에게 매년 '한독 여의사 학술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상금은 2,000만 원이며 시상식은 지난 4월 15일(토) 연세대 백양누리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한국여자의사회 제61차 정기총회에서 있었다.



## 유경하(의학 84) 동창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 차기 이사장 선출**

이대목동병원장으로 재직 중인 유경하 동창이 최근 열린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 평의원회에서 제3대 이사장으로 선출되었다. 임기는 11월 1일(수)부터 2년 간이다. 유 동창은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 학술이사,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이사, 대한조혈모세포이식학회 학술이사 등을 역임한 바 있다.



## 이숙진(커미부 86) 동창 **여성가족부 차관 임명**

한국여성재단 상임이사 이숙진 동창이 여성가족부 차관에 임명되었다. 이 동창은 여성학자이자 여성운동가로 주로 학계에서 활동하다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비서실 양극화민생대책비서관을 맡은 바 있으며, 정책 기획과 행정 경험을 모두 갖춘 여성 정책 전문가로 꼽힌다.

## 제2회 ‘빛나는 이화인’ 상 수상자 인터뷰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상무이사,  
모바일헬스케어 랩장(長)  
박종애 동창

### “과학과 기술이 바라보는 곳도 결국은 사람”



2017년 5월 31일(수) 이화 창립 131주년 ‘동창의 날’ 기념행사에서 모교 총동창회가 수여하는 제2회 ‘빛나는 이화인’상을 수상한 박종애(물리 87) 동창. 국내 대기업 연구소에서 과학기술 분야의 미래기술을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고, 현재 IT기술과 의료의 융복합 분야인 모바일헬스케어 산업의 최전선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인재다. 인간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분야에서 자신만의 영역을 개척해온 박종애 동창의 이력이, 일을 통해 사람의 본질을 이해하고 사회에 기여한다는 이화정신에 꼭 들어맞기에 올해의 ‘빛나는 이화인’으로 선정했다고 총동창회는 밝혔다.

6월 초, 경기도 수원시 영통에 있는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전자소재연구단지에서 박종애 동창을 만났다. 고정관념이란 무섭다. 과학 엔지니어이자 세계 최첨단 기술 연구와 개발이 이루어지는 대기업 연구소의 관리자이니 다소 건조한 웃자람의 임원을 만나게 될 거라 예상했다. 하지만 웬걸, 오렌지색이 감도는 담갈색 블라우스에 흰 바지를 산뜻하게 매치한 박 동창이 접견실로 들어섰다. 웨이브 있는 긴 머리는 어깨 아래까지 찰랑거렸다. 예상이 깨진 자리에서 즐거운 호기심이 피어올랐다.

#### 전파천문학에 빠진 물리학도가 4차 산업혁명의 선두주자로

우선,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쉽게 설명해달라고 했다. “모바일헬스케어란 말 그대로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을 말합니다. 현재 시계 같은 뱀드를 손목에 차고 다니면서 자신의 심장 박동 수를 확인할 수 있는데, 3~5년 정도 후에는 혈압과 혈당 등 병원에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야 만 알 수 있던 여러 가지 건강정보를 손쉽게 알 수 있는 단계까지 발전할 겁니다. 내 몸 안에서 일어나는 모

든 증상과 징후를 적시에 포착해서 최선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게 목표죠. 삼성을 비롯해 애플, 구글 등 글로벌 IT업체들도 현재 열심히 연구개발 중인 분야입니다.”

현재 다들 비슷한 출발선 상에 있고 치열하게 경쟁 중이며, 누가 먼저 앞으로 치고 나갈지 아무도 모르는 신사업 신 서비스 분야라는 소리다. 은근한 긴장감이 느껴진다.

박 동창은 학부에 이어 석사와 박사도 모두 물리학과에서 마쳤다. 천체물리, 그중에서도 ‘전파천문학’에 관심을 가진 박 동창은 석사를 마치고 박사과정에 진학한 후에, 한국천문연구원에서 학생 신분으로 전파망원경에 들어가는 하드웨어 수신기를 개발하여 2000년에 박사학위를 땄고, 바로 삼성전자 종합기술원에 스카우트되었다.

삼성전자 종합기술원에서 10년간 한 일은 4세대 이동통신시스템 개발이다. 하나의 단말기로 음성·화상·멀티미디어·인터넷·음성메일·인스턴트메시지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손안의 PC’, 즉 오늘날의 4G 스마트폰 개발에 참여한 것이다.

2011년부터 3년간은 국가과제인 ‘초저전력(超低電力) 무선통신 핵심기술을 개발’ 산학협동 프로젝트를 총괄하여 IP 확보 및 인체 통신에 적합한 초저전력 통신기술의 국제표준 수립에 기여, 2014년에 ‘국가 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전파천문학에 빠진 물리학도가 전파망원경 하드웨어 수신기를 개발하고, 무선통신 기술이 집약된 4G 단말기의 통신 칩 개발에 참여한 데 이어, 지금은 IT기술과 의료의 융복합 사업인 모바일헬스케어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주역이 되었으니, 마치 하나의 씨앗이 자라 줄기를 뻗고 나무로 자라듯 박 동창이 걸어온 길은 그 자체가 하나의 정연한 로드맵을 보는 느낌이다.

### 인간의 본질에 대한 고민, 인문학적 성찰이 있는 과학이 필요

박 동창은 2012년 말,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상무이사로 승진했다. 그가 참여하고 주도했던 일련의 기술개발 성과들이 사업적으로도 성공을 거두면서 조기에 임원 빌탁이 된 것이다. 과학자/엔지니어와 조직 경영자, 어느 곳에 더 자신의 무게를 두는지 궁금했다.

“저와 함께 일하는 연구원이 45명인데 그중 90퍼센트 이상이 박사 출신이에요. 이들과 함께 잘 가려면 우선 저부터 부지런한 과학자, 엔지니어가 되어야 하죠. 하지만 또한 이곳은 미래기술을 준비하는 곳이라 조직원들에게 앞으로 5년이나 10년 뒤 우리 사회에 필요한 기술이 무엇이고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비전을 주고 동기부여도 해야 합니다. 두 가지 다 중요하지만, 방점은 과학자/엔지니어에 찍고 싶군요.”

현재 우리의 삶을 가장 많이 바꿔놓은 정보통신 기술 개발이 박 동창이 관여해 온 현장이다. 그렇다면 IT산업의 기반 위에 도래한다는 4차 산업혁명의 신사업은 무엇이 다른 걸까?

박 동창에 따르면 이렇다. 지금까지의 연구개발은 좋은 성능을 가진 제품을 만드는데 집중되어 왔다. 보다 정확하고 더 오래 쓰며 더 많은 기능을 갖도록 하는 것. 이것은 이것대로 중요한 업무로 남을 것이다. 그런데 IT기술에 인공지능, 나노기술, 생명공학 등이 결합되면서 한 단계 진화한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자동차가 알아서 안전하게 운전을 해주고, 냉장고에 우유와 달걀이 떨어지면 냉장고에 부착된 센서가 마트에 주문을 하고 결제까지 해주며,

손목 위 밴드는 내가 어느 시간대 어느 실내온도에서 가장 숙면을 취할 수 있는지를 분석해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해주는 것이다.

참 다른 세상이 될 것 같다. 하지만 빛이 있으면 그늘도 있는 법. 사람이 해오던 일을 기계가 해주니 우리 삶이 너무 삭막해지지는 않을까? 사람의 일자리도 다 기계에 내어 주는 세상이 되는 건 아닐까?

“과학기술은 인간 삶의 효율을 높이는 수단과 방편일 뿐 인간의 정체성을 대체하는 존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화나 소설을 보면 첨단과학이 결국 디스토피아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가정이 종종 등장하는데, 이건 과학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인간과 사회의 윤리관 혹은 정치와 더 깊은 연관이 있지요. 다만 과학이 갖는 사회적 파급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만큼 과학기술에 종사하는 이들이 ‘인간’의 본질에 더 집중하고 인문학적 성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끊임없이 변화해 왔고, 이 변화 속에서 어떻게 행복을 극대화하고 많은 사람들이 공정하게 그 열매를 누리도록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사회와 정치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사회문제에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 시간이 흘러도 각인처럼 남은 ‘이화정신’

학교에 다닐 때는 어떤 학생이었는지 물었더니 수학과 물리, 그리고 실험을 좋아하는 전형적인 이과생이었다며 웃었다. “책 들고 집과 학교만 왔다 갔다 하며 절대 딴 길로 새는 법이 없던 고지식한 학생이었죠.” 후회되는 게 있느냐 물었더니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배낭여행을 실컷 해보겠다고 했다. 역시 여행은, 안 해본 사람은 모두가 후회하고 해본 사람은 절대 후회하지 않는 영역이라더니 그 말이 맞는 것 같다. 그리고 하나 더 아쉬운 게 있다고 했다. 인문학적 지식과 소양을 갖춘 자연과학도가 되기 위해 되도록 다양한 책을 섭렵할



**“과학기술은 인간 삶의 향상을 높이는 수단과 방편일 뿐  
인간의 정체성을 대체하는 존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것이다… 뒤늦게 인문서의 매력에 푹 빠졌다라는 박 동창은 지금 세 권의 책을 동시에 읽고 있는 중이라 했다.

기억에 남는 스승을 묻자 대학원 지도교수이던 양종만 교수라고 답했다. 학부생이던 박 동창이 석사 진학을 준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양종만 교수가 불렀다고 한다. 무엇을 공부 할 생각이냐는 질문에 박 동창은 “전자기학을 좋아합니다”라고 대답했다. “전자기학이 좋으면 전파를 공부하면 되겠네.” 하지만 양종만 교수는 천체물리학 중에서도 동위원소 분석이 주 분야였다. “선생님과 다른 분야인데 제자가 되어도 괜찮을까요?” 양종만 교수는 허 허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나는 지도교수로서 너한테 학문하는 방법을 가르칠 거야. 네가 무엇을 공부하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박 동창은 이렇게도 질문했다. “물리학과에서 전파 천문학을 공부하면 천문학과에서 전파천문학을 공부한 사람보다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는 건 아닐까요?” 그러자 돌아온 양종만 교수의 대답. “너는 천문학 전공생이 가지지 못한 물리학이라는 기초학문을 가지고 있는데 왜 불리한 것만 생각하지?” 스승의 이 말은 비교만 하려던 박 동창에게 죽비 같은 깨우침을 주었다. ‘아, 관점에 따라 이렇게 다른 세상이 열리 는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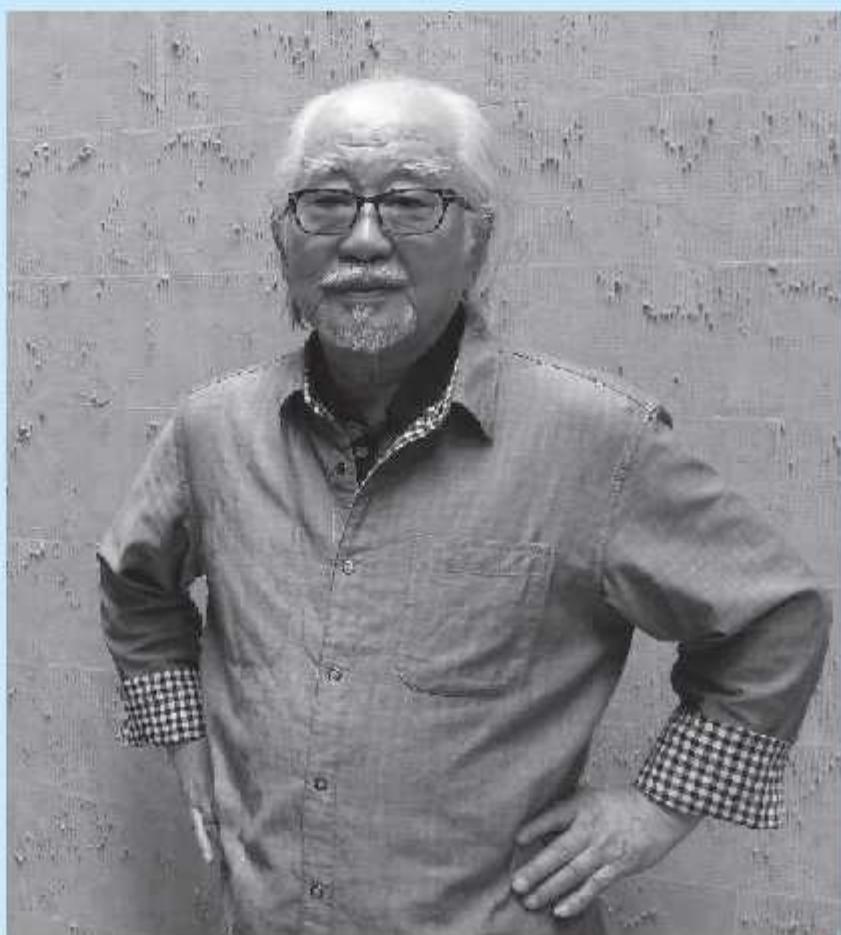
양종만 교수의 제자가 된 박 동창은 정말 혹독한 지도를 받았다고 한다. 밤을 새워 모든 것을 꼼꼼하고 완벽하게 준비해도, 늘 허를 찌르는 심플한 질문으로 제자를 당혹케 하는 선생님. 일명 사자새끼 훈련방식이었다. 그렇게 2년간 훈련받고 나니 어떤 학회나 발표 자리 도 두렵지 않게 되었다.

박 동창이 이화에서 얻은 유산은 무엇일까? 마지막 질문에 박 동창은 망설임 없이 답 했다.

“사회에서 만난 이화인은 공통적으로 책임감이 강했어요. 대충 일하는 이화인은 한 사람 도 만나지 못했죠. 돌이켜 보면 채플 시간에도, 학교 교수님들도 늘 우리에게 사회에 나가 면 지향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할 것을 교육시키셨어요. 불교 신자였지만 채플 시간에 자주 들었던 ‘하나님의 정신’, ‘음지에 눈 돌리고 어려운 사람을 생각하는 이화인의 정신’이라는 말이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남아 있어요. 이것이 이화가 제게 준 가장 귀한 유산이라 고 생각합니다.”

글·임은실(국문 86, 이화동창 편집위원)

## “비음도 음악이고 백지도 그림. 예술가는 ‘저 너머의 것’을 생각하지”



김형대 명예교수

1936년 서울 출생. 서울대 회화과 및 연세대 교육대학원 졸업. 1977년부터 2002년까지 25년간 이화여대에서 근무했다. 1961년 대한민국미술전람회(국전)에서 추상 회화로는 처음으로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상을 수상하는 등 국전에서만 총 6회 수상했으며, 제2회 공간국제 판화대상전 대상(1982년)을 수상하였다. 가나아트센터, 갤러리 인, 토탈미술관, 박영덕화랑, 갤러리현대, 암스테르담, 쿨른, 파리, 뉴욕, 도쿄 등에서 다수의 개인전 및 단체전, 초대전을 열었으며, 현재도 작품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2014년에는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에서 196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는 작품 110여 점을 소개한 회고전을 가졌다.

### 함께한 제자들(졸업연도 순)

차명임(서양 82) 화가, 파비욘드갤러리 대표  
조기련(서양 83) 한옥 실내 디자이너, 문화정원아트홀 공동대표  
김효선(서양 92) 독립 큐레이터

안성 작업실을 찾아가기로 했다. 결혼 후 25년 만에 본격적인 예술 작업 행보를 시작한 조기련 동창은 내친김에 과 동창회장까지 맡고서 교수님께 인사를 여쭐 참이었다. 그 의욕을 해아리는 차명임 전임 동창회장이 앞장을 서고, 이를 응원하

는 독립 큐레이터 김효선 동창이 합류했다. 이들의 대화는 사적인 근황을 주고받는가 싶다가도, 어느새 미술계 동향과 최신 소식에 겹쳐졌다. 1945년 설립된 모교의 조형예술대학은 그 역사 만 72년. 우리나라 미술전공 4년제 대학 교육 기관



온은하면서 밝고 화사한 색감의 작품들이 자연광들 속에 더욱 빛난다. 왼쪽부터 김효선·조기련 동창, 김형대 명예교수, 차명임 동창

으로는 최초로 설립됐으니, 어찌 이화를 빼놓고 우리 미술계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

**김효선**\_\_우리 현대회화는 모노크롬(단색화) 미술과 민중미술 두 가지 흐름이 있어요. 김형대 교수님은 모노크롬 미술에 큰 족적을 남기신 분이에요. 표현기법은 물론, 온은하게 빛이 스며나오는 듯한 감각이 독특해요. ‘후광(後光)’이라는 용어를 기억해 두시면 좋을 거예요. 뒤에서부터 앞으로 번져나오는 정신성을 추구하시지요.

**차명임**\_\_요즘 미술계에서 가장 핫한 것이 모노크롬이에요. 9회 말 홈런이랄까? 교수님과 작품에 대한 주목도가 매우 높아졌어요.

**조기련**\_\_엄격하기도 했지만 정말 격의 없으셨어요. 이런 이야기 괜찮을까요? 엠티 가서 고스톱을 쳤거든요. 사제기간에 오간 대화가 그야말로 콩트예요. 교수님은 제자에게 “싸라, 죽어라”, 제자는 교수님께 “싸세요, 돌아가세요”. 엄격하기도 했지

만 정말 격의 없으세요.

**차명임**\_\_학생들이 심심찮게 찾아뵈었어요. 사모님이 늘 차를 내주셨는데, 단체로 세배 갓을 팬 떡국도 주시고, 가래떡도 싸주셨지요. 건강하신지….

**조기련**\_\_“그림을 보지 말고 들어라” 하시던 말씀을 또렷이 기억해요. 저도 아이들을 가르칠 때면 꼭 그 말을 해주었어요.

**김효선**\_\_만나면 아시겠지만, 멋쟁이세요.

스튜디오 입구, 아까시나무의 가지들을 툭툭 쳐내고 계셨다. 스승은 달달한 멘트를 스스럼없이 날리며 세 제자를 반겨 주신다.

**김형대**\_\_너희들이 온다는데, 나뭇가지가 성가시게 굴면 안 되잖아.

**차명임**\_\_스튜디오가 정말 밝고 화사해요. 안구가 정화되는 느낌이랄까. 온은한 색감의 작품들 때문인가요?

**김형대** 자연채광 덕일 거야. 해외에 나가면 공항이나 역의 광선 처리나 천장 높이 같은 걸 눈여겨보았다가 내가 건축 아이디어를 냈지. 20년 공들여서 마련한 작업실이야. 매일 이리로 출근하고 있어. 나의 놀이터야.

노년의 스승은 중년이 되어 몰려든 제자들에게 인생과 예술을 구비구비 풀어낸다.

**김형대** 나는 인생이 골치 아팠어. 공부를 잘하는 편이었는데 중학교 시험에서 낙방을 했어요. 그리고 6·25가 일어났어. 고등학생 때 천막에서 공부를 하는데, 선생님이 요한 슈트라우스를 틀어줬어.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 그런 게 하나둘 예술에 접근하는 데 도움이 된 거야. 우리 할아버지가 한량이셨는데, 그런 게 나한테 나오는 것 같았어. 친구들은 서울대 상대를 가고, 나는 유급을 했지. 그러던 중에 동네 친구가 데생하는 걸 따라하니 할 만해. 그때 미술대를 가겠다 결심했어요. 부모의 기대가 워낙 컸는데… 어휴, 내가 떨어지는 것에 콤플렉스가 생겼어. 국전에 작품을 낼 때도, 떨어지면 안 되겠거든. 100호짜리 10점을 그런 뒤에 골라서 3점을 냈지. 그게 <환원 A, B, C>인데, <환원 B>를 지금 국립현대미술관이 소장하고 있어. <환원A, C>는 없어졌어. 어디로 갔는지.

김형대 명예교수는 자신의 대표 연작인 <후광(後光)> 앞으로 제자들을 이끌었다.

**김형대** 우리 어머니가 동대문 시장에서 비단 장사를 하셨어. 30년이 지나서 그 비단이 물감을 만-

나니까 내 몸에 묻어 있던 옛날 것이 자연히 작품 속에 나오더라고. 서양 사람은 이런 거 못 그려요. 그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덩더 덩덕쿵’ 이런 장단이 나오지. 작업할 때는 문을 잠그고 혼자서 화면을 노려보다가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소리도 지르고 해요. 그러면서 뭐랄까 ‘저 너머의 것’이 나온달까. ‘삶의 뭐’는 그렇게 나와. 나름대로의 내 백그라운드인 거지. 시선의 방향과 각도에 따라 보이는 색도 들리는 장단도 달라.

**조기련** 진짜 옛날 포목점에 온 것 같네요. ‘그림에서 소리를 들으라’는 교수님의 가르침이 이거다 싶기도 하고요.

**김형대** 요즘엔 용기가 생겨. 얼마 전 미술관에서 전시를 했는데 두 점을 다른 사람이 가져갔어. 그림이 팔리는 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 특히나 추상화가. 예전에는 더했지. 내가 하는 작업은 보는 게 아니라 읽는 거거든. 예술가는 사고가 다르잖아? 비음도 음악이고, 백지도 그림이야. 새로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지. 만리를 여행하고, 만 권의 책을 읽고, 만 번을 그려 봐야 해. 예술이란 거, 그 거 어려운 거야. 그런데 요즘 내가 가능성을 좀 봤어. 참, 니가 중책(동창회장)을 맡았더구나. 일을 안 하려면 얼마든지 안 할 수 있지만 열심히 하려면 일이 엄청 많아요. 가슴으로 넣는다는 말이 있지? 그 말이 맞는지 모르지만 가슴으로 해야 해. 인재는 그렇게 키워야 해.

**조기련** 차 선배가 일 없다고 해서 덜컥 맡았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김형대** 우리는 ‘이서전’이나 ‘채림회(彩林會, 이화여대 서양화과 동문회전)’ 같은 고리가 있으니, 듣든하지. 실력면에서 월등해요. 졸업 후 작업을

하지 않고 있던 친구도 와서 자극받고, 그래서 다시 용기를 내기도 해.

**조기련** \_\_ 작업을 하지 않고 있으면 죄송해서 더 찾아뵙기도 어렵더라고요.

**김형대** \_\_ 아니야. 나는 그런 친구들을 반갑게 맞이해요. 말했지만 나에겐 낙방 콤플렉스가 되레 행운이야. 1960년대 그 시대에 누가 추상화를 알아줬겠어? 그래서 목표를 더 높이 세웠지. 일기에도 그렇게 썼어요. ‘나를 알아주겠지.’

**차명임** \_\_ 여대에서 교편을 잡으시면서 어려운 점도 있으셨지요?

**김형대** \_\_ 그대들은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들. 나를 터득한 처세술이야. 강의실에서도 시선을 고루 주어야 해요. “오빠” 하고 불러도 뒤돌아보질 않는 사람이야, 내가(일동 웃음). 내게는 김옥길 총장과의 약속이 소중했어. “제자를 좀 키워 주시오.” 그래서 만든 게 채림회야. 1977~80년에는 학생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참 열심히 했지.

**조기련** \_\_ 사실 학생 때는 교수님의 가르침에 반항하기도 했어요. 내 세계를 이해 못하시는 것 같다는 맘도 들고요.

**김형대** \_\_ 가르칠 땐 균형 잡기가 제일 중요해. 상대와 나를 저울질 해가면서 무게를 정할 줄 알아야지. 나는 지도하는 작품이 잘 되고 있는지 아주 궁금해지는 타입이라 학교에 일찍 나와서 아무도 모르게 작업실을 다 돌아. 고민 과정에 동참을 해서 방향을 제시하는 거지.

**김효선** \_\_ 후배랑 교수님 스튜디오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마침 판화 작업 중이셨는데, 찾아왔으니 판화 찍는 법을 배워 두라며 한참 가르쳐 주셨지요. 그때 정말 제대로 배웠어요.



김형대 명예교수는 스튜디오 주변과 정원에서 손수 가꾸고 있는 꽃과 나무들을 일일이 알려 주신다

**김형대** \_\_ 내가 학교에 바라는 것은 3학기제야. 기존 2학기제로는 부족해. 예술가에게는 새로운 경험들이 필요한데, 결혼이든 유학이든 여행이든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학교가 뒷받침해주어야 할 것 같아.

아까시 향 따라 마실 온 친구 대하듯, 솔솔 시종 유쾌하게 대화를 주도하던 김형대 명예교수는 자리를 마무리하며 한번 더 흥을 돋우어 주신다.

**김형대** \_\_ 나한테는 원칙이 있어. 30살을 기준으로 그 미만은 내가 밥값을 낸다.

**차명임** \_\_ 밥은 저희가 사야겠는걸요. 저희 30살 조금 넘었어요.

**김형대** \_\_ 알지. 그런데 오늘은 내가 살 거야. 너희가 30살 이전일 때 우리 만났잖아.

진행 및 정리·박종분(중문 89, 이화동창 편집위원)

## 세계의 젊은이들이 이화에 모여 ‘한국’을 배우는 곳

# 2015년 9월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스워스모어 칼리지(Swarthmore College)에 갓 입학한 미국 교포 2세 주혜 양은 그해 11월에 엄마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다. 메시지를 열어 보니 한국 어느 대학교의 서머스쿨 프로그램 안내가 링크되어 있었다.

‘Ewha Womans University… 이건 엄마가 다녔다는 모교인데?’

대학 생활에 적응하느라 정신없이 바쁜 나날이었지만 한국에 대한 관심을 늘 가지고 있었기에 홈페이지에 들어가 내용을 훑어보았다. 한국 역사와 문화에 대한 다양한 교과목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도 주혜 양의 관심을 끈 것은 바로〈국어학(Korean Linguistics)〉. 언어학이 전공인 그녀에게 이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재미있는 기회라 생각했고, 그래서 이듬해 여름을 부모님의 모국에서 보내기로 결심한다. 그리고 7개월 뒤 주혜 양은 커다란 가방을 끌고 드디어 이화의 아름다운 교정에 들어섰다.

# 네덜란드의 위트레흐트 대학교(Utrecht University) 학생인 쥬디스(Judith) 씨는 2016년에 캐나다의 한 대학에 교환학생으로 가서 한국어를 배웠다. “도대체 캐나다에서 왜 한국어를 배우는 거야?” 주위의 모든 이들이 쥬디스 씨에게 물었다. ‘한국 대중음악을 즐겨 듣고 한국 드라마도 좋아해서 한국어를 배우는데 뭐가 이상하지?’ 여름방학이 다가오고 있었다. 세계지도를 펼쳐놓고 바라보던 쥬디스 씨는 한국에서 여름 두 달을 보내기로 결심했다. ‘한국어를 배우기에 한국만큼 좋은 곳은 없지…’ 또한 〈여성학과 젠더학(Women’s And Gender Studies)〉은 쥬디스 씨의 복수전공 분야 중 하나이기도 했다.

2016년 이화 국제하계대학 참가자들의 졸업기념 사진, ECC 이삼봉 풀



쥬디스 씨는 자신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알차게 갖춰진 이화의 국제하게 대학이 최상의 선택이라 생각했다. 암스테르담의 스키폴 공항으로 날아 간 그녀는 공항에서 부모님을 잠깐 상봉하고, 가방 속 짐을 인계한 뒤 부모님이 가져온 새 여름옷으로 가방을 채워 다시 한국행 비행기를 탔다.

### 1971년 문을 연 국내 최초의 국제하게대학

대학시절, 여름방학마다 학교에 가면 교정을 거니는 한 무리의 외국인 혹은 교포 대학생들을 마주치곤 했다. 짧은 반바지에 백팩을 메고 간혹 이마에 멋진 헤드밴드를 두른 남학생도 있었던, 1980년대 당시로서는 이국적인 차림의 젊은이들. 영어로 이야기를 나누며 유쾌하게 웃고 떠드는 그들은 방학 중의 고즈넉한 교정을 색다른 에너지와 풍경으로 채우는 주인공들이었다.

이화 국제하게대학(원장: 최원목(모교 법학과 교수))은 외국의 젊은이들에게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공부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설립된 국내 최초의 국제하게대학이다. 1971년에 문을 열었으니 올해로 47년째다. 1977년에는 미국 캔자스 대학과 'Kansas At Ewha Program'을 마련하여 이화에서 이수한 과목들의 학점은 외국 대학에서 모두 인정하는 '해외 대학과의 학점교류'의 선도적 사례를 만들기도 했다.

### 35개의 영어 강의 교과목과 한국어 수업 제공

세계 각국의 젊은 인재들이 모여 함께 공부하고 우정을 쌓으며 한국을 배우는 이화 국제하게대학은 6월 중순부터 7월 중순 까지 총 4주 동안 운영되는 프로그램(세션1)과 8월 중 총 2주 동안 운영되는 프로그램(세션2)으로 각각 구성되어 있다. 올해의 경우 4주 과정인 세션1은 6월 20일(화)부터 7월 18일(화)까지, 2주 과정인 세션2는 8월 8일(화)부터 22일(화)까지 진행된다.

#### ▶ 세션1: 이화의 국제교육 노하우가 집약된 프로그램(4주 과정)

정규수업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이루어지며 학생들은 1~2개 과목을 선택, 3학점 또는 6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이화 국제하게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전 세계 대부분의 대학에서 학점 인정이 가능하다. 정규 수업 외에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1회에는



대부분 20명 이내의 소규모로 진행되기에, 상호소통을 기반으로 한 질 높은 교육이 이루어진다



한지 위에 붓과 먹으로 사군지를 그리는 동양화 수업



가야금, 장고 등을 배우는 한국 전통음악 수업



"한국음식 배워 나도 대장금 될래요"

한국민속촌, 비보이 공연, 에버랜드, DMZ 방문 및 한국음식 만들기 체험 등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체험 활동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한국 전통음악, 동양화, 도예를 배우는 실기 수업은 하계대학에 참가하는 학생들에게 아주 인기 있는 수업이다.

① 한국 및 동아시아와 관련한 역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및 심리학과 광고학 등 전반적 영역에 걸쳐 35개 교과목이 영어로 제공된다.

② 초급부터 고급까지 4단계로 제공되는 한국어 수업이 있다. 수강 희망자는 프로그램 시작 전 레벨테스트에 응시하여 결과에 따라 적합한 반으로 배정된다.

③ 한국어 능통자라면 이화여대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약 300여 개의 여름 계절학기 교과목 중 원하는 것을 수강할 수도 있다. 여름 계절학기 개설 교과목은 해마다 5월 초에 확정되므로 국제하계대학 사이트에서 링크를 따라 들어가면 확인 가능하다.

#### ▶ 세션2: 한국학 입문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2주 과정)

수강신청을 통해 수업을 듣는 세션1과 달리, 세션2는 주제별 특강들과 관련 문화체험 프로그램들로 이루어진 ‘한국학 입문’의 맞춤형 수업으로, 총 3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① 초급부터 고급까지 3단계로 제공되는 한국어 수업이 있다,

② 한국 예술, 영화, 음식, 대중문화부터 역사, 여성과 사회, 북한학과 같은 한국을 더 잘 알 수 있는 다양한 특강들이 주제별로 마련되어 있다.

③ 국립중앙박물관과 한국 전통예술 관람, 한옥마을 방문, 한강 크루즈 등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이 있고, 한국문화 체험을 위한 1박 2일 안동 여행도 준비되어 있다.

### 소규모 수업,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으로 차별화!

이화 국제하계대학은 2,000명 이상 대규모로 운영되는 타 대학 국제하계대학과는 달리 400~500명 내외의 소규모로 이루어진다. 인원이 적은 만큼 참가자 개개인에 대한 지원과 배려가 세심하게 이루어지고, 상호소통을 기반으로 한 소규모 강의로 수업의 질이 탁월하다. 또한 다양한 문화 체험프로그램을 배치하여 참가자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초빙된 교수들에게서도 커다란 호응을 얻고 있다.

해외 대학교(원) 재학생 및 휴학생, 해당 연도 가을에 해외 대학교 입학허가를 받은 고등학교 졸업예정 남녀 학생은 이화 국제하계대학에 지원할 수 있다.

또한 국제하계대학 세션1(4주 과정)은 모교 여름 계절학기와 동일하게 운영되므로 모교 재학생도 여름 계절학기 신청 시기에 맞춰 지원할 수 있다. 재학생에게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외국인 학생들과 지구촌이 겪고 있는 여러 사회문제에 대해 다각적인 시각을 나눌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될 수 있다. 아울러 이화여대와 교환협정이 있는 대학의 학생도 교환 학생 상호교류 현황에 따라 하계대학 프로그램에 교환학생으로 참가할 수 있다.

하계대학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모교 국제기숙사(I-House)에 머물 수 있으며, 기숙사는 지원서 작성과 학비 납부를 완료한 학생에게 선착순으로 배정된다. 모교의 기숙사는 해외대학 학생들에게 인기가 매우 높으므로 기숙사 배정을 원하는 학생은 빠른 등록을 추천한다. 지원방법과 서류, 개설 과목명 및 교수진, 참가비와 기숙사 비용 등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이화 국제하계대학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이화인의 네버엔딩 스토리는 이곳에서도 이어진다

이 글의 시작에서 언급한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의 주혜 양처럼, 해외에 거주 중인 이화동창의 자녀나 가족들이 이화 국제하계대학에 공부하러 오는 경우도 있다. 엄마의 추억이 서린 공간에 와보고 싶었다는 주혜 양은, 이화에서 몇 주 동안 배우고 체험한 한국이 미국에서 19년을 살면서 배운 한국보다 훨씬 깊고 의미 있었다고 말했다.

3대에 걸친 인연도 있다. 1950년대에 모교 대학원 약학과(생물화학 전공)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 가 정착한 최춘희 동창은 1984년에 자신의 딸을 이화 국제하계대학에 보냈고, 손녀가 2017년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한국인 외할머니가 이화동창이라는 미국 Burge 가문의 세 자매는 2012년과 2015년, 그리고 2017년에 나란히 국제하계대학에 등록하여 참여했다. 한국과 이화의 매력에 흠뻑 빠진 언니들이 동생들에게 차례로 추천했기 때문이다. 1988년 국제하계대학에 참가했던 재외동포 학생이 학부모가 되어 한국의 뿌리를 아들에게 알리고자 28년 뒤인 2016년에 세션2 프로그램에 보낸 경우도 있다. 한편 워싱턴DC 지회에서는 해마다 2명의 지역학생을 선발, 장학금을 지원하여 이화 국제하계대학에 보내고 있다.

이렇듯 이화동창의 추억은 이곳에서도 아름다운 인연의 꽃을 피운다. 동창 자녀에게는 교육비 10% 할인적용이 되니, 자녀와 함께 이화의 스토리를 잊고 싶은 해외 동창은 이화 국제하계대학에 관심을 가져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생애 가장 다채롭고 의미 있는 여름을 이곳 이화에서 만나게 될지, 누가 아는가.

\*이화 국제하계대학 홈페이지: <http://summer.ewha.ac.kr>

문의: 국제교류팀(02-3277-3160), 이메일: [gosummer@ewha.ac.kr](mailto:gosummer@ewha.ac.kr)



매주 금요일에는 다양한 문화체험 활동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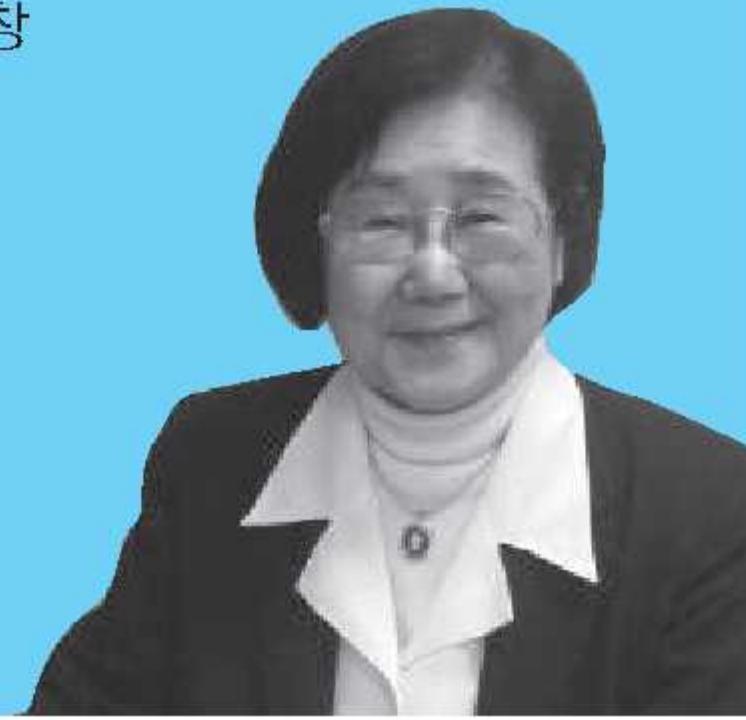


안동 1박 2일 여행 중 인근 강가에서 래프팅을 즐기는 학생들

글·임은실(국문 86, 이화동창 편집위원)

만나고 싶었습니다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동창

##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는 것이 법률구조사업의 기본정신이죠”



우리 사회 곳곳에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을 몸소 실천하듯 여전히 현장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에 여념이 없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법률구조 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이하 상담원)의 원장 양정자(법학 66) 동창이 바로 그런 사람들 중 하나다. 늘씬하고 훈칠한 키에 소년 같이 순수한 미소를 지닌 양정자 동창은 73세라는 나이가 믿어지지 않을 만큼 인터뷰 내내 당당하고 꼿꼿한 인상을 잃지 않았다.

“사실 어릴 적 꿈은 인권변호사, 통일대통령이었어요. 그래서 ‘여자가 법을 공부해서 뭣에 쓰게…’ 라던 시절에 주저없이 법학과에 들어갔고요. 법학과 4학년 때 법대 학장으로 계시던 이태영 선생님이 강의한 <가정법률상담 실습>을 들었어요. 법이 필요한 현장에 가서 직접 법률상담과 조정 등 법률구조 활동을 해보면서 실무를 배우는 수업이었죠. 그것이 제가 법률상담 분야에 몸담게 된 계기인 셈이에요.”

피해자와 피의자 쌍방이 소송으로 가기 전 단계인 상담과 조정 및 화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데는 판례를 중심으로 한 이론수업보다 법에 호소하-

려는 내담자들을 직접 만나 상담하는 것만 한 게 없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상담원도 실무 수습교육기관으로 선정되어 서울대, 원광대, 성균관대, 인하대 로스쿨과 산학연대협약을 맺었다.

이태영 선생님을 도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이하 한가소)에서 33년간 헌신한 양 동창은 1999년 3월 한가소를 퇴임하고 1999년 8월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을 개원하였다. “국내외 지부에서 뜻을 함께하던 분들이 지식, 재능, 금전, 시간 등을 기부해 주시고 그분들의 물심양면의 지원에 힘입어 목동홍익병원 별관 6층에 자리를 잡게 되었지요. 당시 신정자(현 상담원 명예이사장)·라석찬(현 홍익병원 이사장) 씨 부부가 고맙게도 선뜻 홍익병원 별관 6층을 4년 동안 무상으로 임대해 주시고 관리비도 전담해 주신 덕분에 우리 상담원이 자립할 수 있는 기초를 다지게 되었어요.”

여러 지인들의 도움과 양 동창의 퇴직금을 몽땅 털어 어렵사리 문을 연 상담원은 올해로 개원 18년째를 맞이했다. 그간 본부와 지부에서 총 28만 4,136건의 상담이 이루어져(5월 말 기준) 수많은 내담자들이 조정화해, 무료대서, 소송구조 등의 도움을 받았다.

상담원이 하는 일은 무료 법률상담에 그치지 않는다. 민주헌법정신에 맞게 법을 제정·개정하도록 목소리를 내고, 국민 스스로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법률 강연과 홍보 등을 통해 교육하는 사업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또한 전국 가정법원 설치운동을 펼쳐 가사전문 법원인 가정법원의 개원을 앞당기기 위해 애쓰고 있다. 창립 10주년에는 ‘법률구조의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한국 최초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여 ‘법률구조제도개선 및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국제인 연대를 구축하기도 했다.

### 호주제 폐지의 쾌거

“제가 한 일 중 제일 잘한 일을 꼽으라면 인간 차별, 혈통 중심의 호주제 폐지를 이끌어낸 거예요. 호주제도에 대한 석사논문을 쓰다가 호주제도를 근간으로 해서 남녀 차별, 인간 차별에 관련된 법조항이 400여 개 이상이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때 ‘호주’라는 단어 자체가 법전에 남아 있는 한 인간 차별은 사라지지 않겠구나 하는 사실을 절감했죠. 그것을 계기로 1999년 10월부터 1년 동안 『여성신문』에 매주 <호주제 클리닉>이라는 제목으로 호주제 폐해사례를 문답 형식으로 다루는 연재를 시작했어요.”

그 칼럼은 뜻밖에도 인권운동, 여성운동, 여성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토론 자료로 활용되는 등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그와 동시에 여성들에게 불리한 가족법, 민법, 사회보장법 등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공론을 모으는 밑거름이 되었다.

“당시에는 여성계 인사들이나 상담원 회원들조차 가족법 개정은 인정하면서도 호주제가 관념적인 개념인데 그게 여자들에게 뭐 그리 대단한 피

1966년 모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모교 대학원에서 가족법 전공, 원광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 취득  
1966~1999년 3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위원 겸임 부소장  
1983~1984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미국 LA 지부 설치 및 자문위원  
1999년 8월~현재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가정폭력상담소 소장, 한국가족법학회 이사, 서울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 서울이주여성디딤터 운영위원으로 활동 중. 법조공익시설 국내 27개, 국외 12개 등 총 45개 개설  
수상: 1969년 인권 옹호 유공자상, 1983년 국민훈장 석류장 등

해를 주겠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호주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을 확산시킨 도화선이 된 거지요”라며 당시를 회상하는 그의 표정에 뿌듯한 미소가 번진다.

마침내 2005년 3월 2일 대한민국에서 가부장제의 표본으로 군림해온 호주제도는 찬성 161, 반대 58, 기권 16이라는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폐지되었고, 여성의 인권 향상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쾌거를 올렸다.

“또 한 가지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까지 지부를 설치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 거예요. 이태영 선생님께서도 세상을 떠나시는 그날까지 지부 설치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있다면 도서 산간 벽지까지라도 찾아가서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치라는 의미였지요. 한가소에서 일하면서 국내 27개 지부와 미국의 12개 지부를 설치하는 데 힘을 보탰어요. 미국 캘리포니아 LA 지부를 설치할 때는 1년간( 1983~84년) 그 곳에 파견되어 근무하기도 했지요. 그 시절, 아무 것도 없는 무에서 처음부터 하나하나 만들어 유를 창조하는 노하우를 쌓았고, 그때 쌓은 노하우가 지금 상담원을 운영하는 데 큰 자산이 되고 있어요.”



현재 상담원에서는 인천, 아산, 부산, 대전, 익산, 강화·서인천, 유성 등 7개 지부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2000년 6월 용산구청을 시작으로 ‘찾아가는 상담’도 실시하고 있다. 현재 노인복지 센터나 공공기관 등 출장상담과 5678 도시철도 지하철 역사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2000년 11월 양 동창은 미국 LA 한인상담소로부터 창설 기여공로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그가 미국 교포 사회에 지부를 설치하려고 동분서주할 무렵인 1980년대 초중반에는 미국인과 결혼하거나 이민을 떠난 한국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일을 많이 했다. “당시 미국 교포 여성들 중에는 참 딱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 많았어요. 시민권을 얻으려고 사기결혼을 하고 도망한다는 등 미국인 남편으로부터 구타와 학대를 당하는 교포 여성들이 한둘이 아니었죠.”

하지만 다문화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최근에는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남편이 중국 동포 아내나 동남아 출신 여성들을 무시하거나 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례

가 이제는 새삼스러운 뉴스거리도 아니게 되었다.

“한번은 한국에 온 지 4년 된 중국 동포 여성이 국적 취득을 도와달라며 상담원을 찾아왔어요. 귀화를 위해서는 재정 능력이 3,000만 원 이상이어야 하는데 남편이 일은 뒷전인 채 술만 마시고 돈이 없어 그녀는 국적 취득은 고사하고 취직도 못하고 있었어요. 자신을 마치 돈 주고 사온 노예로 여기면서 감금하는가 하면 아들조차 나 몰라라 한다며 하소연했어요.”

당시 양 동창은 《중앙일보》에 <마이너리티의 소리: 한 중국 동포 여성의 호소>(2003년 1월 22일자)라는 글을 통해 이런 처지에 놓인 여성들이 국적 취득에 불이익이 없도록 국적법의 개정이 시급함을 알려 사회적으로 국적법 개정을 촉진시켰다.

그 후 다문화가정의 수는 엄청나게 증가했고 그에 비례해 이혼율도 증가하고 있다. 그런 현실을 감안해 상담원에서는 결혼이민자와 그 배우자가 알아야 할 법률내용을 7개 국어로 번역해 소개한 『다문화가정을 위한 법률가이드』(2012)도 발간했다.

개원 초기부터 상담원 부설기관으로 운영된 가정폭력상담소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다. 이혼 사

유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가정폭력과 최근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성폭력에 대한 관심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 2013년부터는 가정폭력·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통합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 트렌드 반영

“조직은 변화하는 사회 트렌드를 반영하는 곳이어야 해요. 그러면 끊임없이 연구하고 새로운 사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건 우리 상담원에도 해당되는 얘기지요. 미국 이민법 강연이나 다문화가정을 위한 법률상담, 각 지역 경찰서와의 가정폭력 상담업무 체결, 성폭력 교육훈련 등도 사회변화에 발맞춰 펼쳐온 사업들이에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민, 유학, 기러기 가정 등이 증가하면서 한국에서의 상속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는 사회 분위기를 반영해 ‘한·미 상속법과 유류분 제도’에 관한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요.”

상담원의 사업들을 조목조목 열거하는 양 동창에게서 여전히 가슴속에 간직한 일에 대한 열정이고스란히 느껴졌다.

“요즘에는 여성보다 남성들의 상담 건수가 더 많아지는 추세예요. 지금은 여성들도 이혼하는 것을 겁내지 않으니까요. 그만큼 이혼율의 증가 속도도 빨라지고 있고요.”

하지만 양 동창은 이혼이 최선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이혼을 결정하기 전에 조정과 화해가 중요하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요즘 핫이슈가 되고 있는 결혼을 졸업한다는 의미의 ‘졸혼’과 관련해 양 동창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졸혼은 사회가 변화하면서 생기는 하나의 현상일 뿐, 그것에 대해 좋다, 나쁘다 가치를 부여할 만한 주제는 아닌 것 같아요. 재산분할이니, 양육

권 싸움이니 하는 복잡한 법적 절차를 피하고 부부가 각자의 독립적인 생활을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보면 어느 정도 수긍이 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재혼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떳떳하게 밝히길 꺼려하는 여성들을 향한 따끔한 일침의 말도 잊지 않았다.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전 혼출생 자녀도 자신 앞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걸 숨기려는 여성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편을 들어주고 싶지 않아요. 내 권리를 지키려면 당연히 의무도 수행해야 하고, 나 자신은 물론 내 자식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당당하게 재혼해야 더 행복하게 살지 않겠어요?”

이제 그에게 남은 소망이 있다면 상담원 소유의 본원 건물을 마련하는 것과 연금혜택에서도 제외된 여성 활동가들이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무료양로원을 짓는 것이다. 최근에는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경북 군위 땅 5만 3,110m<sup>2</sup>(약 1만 6,000평)도 기부했다. 그는 “그 땅에 시민단체에 일생을 바친 여성들이 노년을 보낼 수 있는 건물이 지어졌으면 좋겠다”며 가슴이 훈훈해지는 바람을 밝혔다.

양 동창의 지난 50여 년은 사회적 약자인 여성 및 아동의 인권보호와 법을 몰라 고통당하는 이웃을 돋는 법률구조사업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온 세월이었다. 법적·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척박한 현실에서 단단한 유리천장을 깨려는 그의 봉사와 헌신이 하나하나 결실을 맺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지금을 사는 우리가 그 결실의 최대 수혜자인 셈이다. 앞으로도 양 동창의 소중한 땀방울이 어려움에 처한 많은 이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기를 기도해 본다.

글·정진숙(행정 89, 이화동창 편집위원)

# 모교 소식

## 모교 제16대 총장에 김혜숙 교수 선임

학교법인 이화학당(이사장 장명수)은 5월 26일(금) 이사회를 열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한 2명의 총장 후보 중에서 철학과 김혜숙(영문 76) 교수를 모교 제16대 총장으로 선임했다.

김혜숙 신임 총장은 5월 25일(목) 진행된 결선투표에서 유효 투표의 57.3%(548,20904표)를 얻어 42.7%(408,69331표)를 얻은 국제학과 김은미(사회 81) 교수를 제치고 최다득표를 기록했다. 김혜숙 총장과 김은미 교수는 지난 5월 22일(월) 현장 사전투표와 5월 24일(수) 1차 투표를 통해 득표 1, 2위를 차지한 바 있다.



이번 선거는 모교 131년 역사 최초로 교수, 직원, 학생, 동창이 모두 참여하는 직선제로 치러졌다. 1990년 제10대 윤 후정 총장 선출 당시 교수 직선제 선거를 한 적

은 있지만 학교 구성원이 모두 참여하는 직선제는 이번이 처음이다.

모교는 15대 최경희 총장이 지난해 10월 19일(수) 교내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 이후 송덕수 학사부총장(법학과 교수)이 총장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총장 부재 219일 만에 선임된 김혜숙 신임 총장은 5월 26일(금) 곧바로 총장으로서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임기는 2021년 2월 28일까지이다.

김혜숙 총장은 1987년에 모교 교수로 임용된 후 스크랜튼대학 초대 학장, 인문학연구원 원장 등의 보직을 맡았으며 이화여대 교수협의회 공동회장, 한국철학회 회장, 한국여성철학회 회장,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새 이화, 함께 빛나는 세상’의 비전 아래 △투명하고 공정한 이화 △구성원 모두가 존중받는 이화 △대학의 가치를 실현하는 이화를 목표로 연구기반 강화, 거버넌스 구조 선진화, 행정 효율화 및 합리화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 창립 131주년 기념식 및 제16대 총장 취임식 개최

모교는 5월 31일(수) 오전 10시 대강당에서 ‘이화 창립 131주년 기념식 및 제16대 총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3,000여 명의 축하 속에 열린 이번 행사는 모교

의 창립 기념일인 5월 31일을 맞아 열리는 131주년 기념식과 제16대 총장으로 선임된 김혜숙 총장의 취임식이 함께 마련되었다.

이날 기념식에는 장명수 이화학당 이사장, 윤후정 전 명예총장, 정의숙 전 이화학당 이사장, 장상·신인령·이배용·김선옥 전 모교 총장, 김영주 총동창회장을 비롯한 내빈들과 연세대 김용학 총장, 서강대 박종구 총장, 흥익대 김영환 총장, 숙명여대 강정애 총장, 덕성여대 이원복 총장, 서울여대 전혜정 총장, 전·현직 국회의원 및 전 장관, 이화와 관련된 주요기관 기관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행사는 국민의례, 찬송가 제창, 기도, 성경봉독, 음악대학 합창단 및 이화오케스트라 축가 순으로 진행됐으며, 총장 임명장 수여와 총장 취임 선서가 이어졌다.

김혜숙 총장은 취임사 및 기념식사를 통해 “이화의 새 총장으로서 사회가 이화에 보여준 신뢰와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사과를 드리는 동시에, 지난해 경험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굳은 다짐과 약속을 전했다.

또한 “세계 최대의 여자종합대학이자 세상 어디에도 없는 여자대학이라는 자기 자리를 명확히 인식하고 그 인식하에 세계를 새롭게 창안하는 지식 첨병의 역할과 소명을 함께 공유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이화의 힘은 남이 걷지 않은 길을 걷는 데서 나오며, 남이 가지 않은 길을 가는 데는 불안이 따를 것이지만 새로운 도전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총장은 이런 비전을 이루기 위해 예측 가능



성·투명성·공정성을 이화 시스템의 핵심으로 만들고, 연구 환경과 교육 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 할 필요가 있다고 설파했다. 또한 인문, 사회, 자연, 예술 분야에서 이화가 갖고 있는 강점을 기반으로 세계 어디에도 없는 이화의 엘텍공과대학과 의과대학을 만들어갈 것임을 천명하고 구성원 모두의 동참을 강조했다.

이후 장기 근속 교직원(총 72명)에 대한 표창 수여가 이어졌다. 의학과 홍기숙 교수와 법학과 장영민 교수, 대외협력팀 강혜송 대리가 각각 30년, 20년, 10년 근속 교직원의 대표로 표창을 수상했다. 더불어 관현악 전공 성기선 교수의 지휘로 이화오케스트라가 <The Planets–Jupiter>를 축주로 전하며 이화의 새 출발을 축하했다.

한편, 기념식 이후 ECC 밸리에서는 ‘함께 만드는 새 이화, 이화인 한마당’ 프로그램이 열려 총장을 비롯한 구성원들이 모교의 기대와 희망에 대해 자유발언 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화 구성원들은 △등록금 안정화 및 장학금 지원 확대 △6대 요구안 실현 △소통의 장 마련 △고시준비반 지원 확대 △수강신청 방안 다양화 등 다채로운 주제로 김 총장과 대화를 나누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 5년 연속 라이덴 랭킹 국내 1위

모교는 세계 902개 대학을 대상으로 국제논문의 질적 수준을 평가한 ‘2017년 라이덴 랭킹(Leiden Ranking)’에서 국내 종합대학 1위를 차지했다. 이로써 모교는 라이덴 랭킹에서 2013~2016년 국내 종합대학 1위에 이어 5년 연속 최상위의 자리를 수성했다.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이 발표하는 라이덴 랭킹은 매년 세계 대학이 발표한 논문 중에서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상위 논문 비율을 평가하는 랭킹으로, 설문조사 방식 등 주관적 평가요소들을 배제하고 학술정보서비스기업 Clarivate Analytics(구 톰슨로이터 IP&Science)의 DB를 활용해 4년간의 논문을 분석한다.

2012~2015년 발표 논문을 대상으로 진행한 올해 평가에서 모교는 인용 빈도 상위 10% 이내 논문 비율이 8.0%로 집계돼 포항공대와 한국과학기술원에 이어 국내 종합대학 1위를 기록했다. 또한 순위가 발표되지 않는 상위 1% 이내 논문 비율에서도 모교가 1.1%로 국내 최고를 기록했다. 학문분야별 평가에서는 자연과학 및 공학(Physical

Science and Engineering) 분야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국내 1위를 차지했다.

모교는 2013년부터 5년 연속 인용 빈도 상위 10% 이내 논문 비율에서 국내 종합대학 1위를, 상위 1% 이내 논문 비율은 해당 비율이 발표된 2015년 이후 3년 연속 국내 최고를 기록해 연구의 질에 있어서 최상위 수준임이 다시 한 번 입증되었다.

모교가 5년 연속 국내 종합대학 1위를 이어갈 수 있었던 데는 세계 최고의 연구와 교육을 위한 교수진과 학생들의 열정, 이를 뒷받침한 대학의 지원이 있었다. 모교는 선도연구분야 육성을 위해 2011년 Global Top5 프로젝트를 비롯해 2015년부터 시행 중인 유망전공 육성사업 등 다양한 연구역량강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세계 연구선도기관과의 연구협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올해 1월에는 기초과학연구원(IBS)과 협약을 맺고 ‘양자나노과학 연구단(QNS)’을 출범하여 원자(原子) 연구를 통해 기초과학 분야에서 세계적 성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 2017학년도 이화 지식나눔 특강 개최

모교의 우수한 교수진과 함께 학문과 산업의 미래를 준비하고, 국내 대학 최고의 교육 브랜드로서 지식 나눔을 선도하고자 ‘2017 이화 지식나눔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학년도에는 시대의 화두로 떠오른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4.0시대의 학문과 산업’을 테

마로 총 12회의 특강이 진행되었다. 사회과학·자연과학·교육학·공학·법학·의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활발히 교육 및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모교 교수진의 특강을 통해 미래 사회와 산업의 방향 등에 대해 함께 논의해볼 수 있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화 지식나눔 특강 시리즈의 포문을 여는 첫 특강은 3월 9일(목) 오후5시 EOC B144호에서 열렸으며, 연사는 2015년 K-MOOC 강의 만족도 1위를 차지한 김찬주(물리학) 교수였다. 김 교수는 ‘물리학: 혁명, 그 이후의 혁명’을 주제로 물리학과 산업, 그리고 미래가 만나는 지점에 대해 강연했다. 특강은 격주로 목요일마다 이어져 이주희(사회학)·권복규(의학)·정제영(교육학)·강민아(행정학)·이원복(법학) 교수가 사회 각 분야별로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는 방향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2학기에는 홍기석(경제학)·여운승(융합콘텐츠학)·진승권(사회학)·이준엽(수학)·고광석(식품영양학)·유승철(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 교수의 특강을 준비하고 있으며, 8월 말 행사 안내를 통해 재학생은 THE포트폴리오, 일반인은 Onoffmix를 통해 선착순으로 온라인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화 지식나눔 특강은 모교 유튜브(<http://www.youtube.com/ewhauniv>)와 페이스북,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보기 서비스가 가능하다.

#### 이화언론인클럽 2017 정기총회

### 20주년을 맞이한 이화언론인클럽

모교 출신 언론직 종사자들의 모임인 이화언론인클럽(회장 김현경 MBC 논설위원, 불문 87)이 4월 26일(수) 이화학당에서 ‘2017 정기총회 및 제17회 올해의 이화언론인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신문, 방송, 잡지 등 언론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모교 출신 언론인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정기총회는 1997년 처음 개최된 이래로 올해 20주년을 맞이했다. 이번 행사는 장명수 이화학당 이사장을 비롯해 교내 주요 보직자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교수진이 모여 수상자를 축하하고 이화언론인클럽 회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현경 회장은 개회인사에서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한 이화언론인클럽의 역사가 곧 여성 언론인의 역사”라며 “이화의 자랑스러운 언론인 간 친교와 화합의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화언론인클럽은 2001년부터 매해 언론계 각 분야에서 뛰어난 활약상을 보인 이화 출신 언론

인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올해 수상자로는 김균미(영문 88, 서울신문 편집국장) 동창과 임정아(커미부 94, JTBC 예능국장) 동창이 선정됐다.

전 한국일보 사장이자 최초의 중앙일간지 여성 주필을 역임한 장명수 이사장은 “이화의 언론인들은 모진 남녀 차별 속에서도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며 “여기자들의 이력서를 같이 써왔다는 마음으로 언론계를 이끌어나가길 바란다”고 격려사를 전했다.

이날 행사에서 제10대 이화언론인클럽 회장으로 이정민(경제 87, 중앙Sunday 편집국장) 동창이 선임됐다.



김균미·임정아 동창(왼쪽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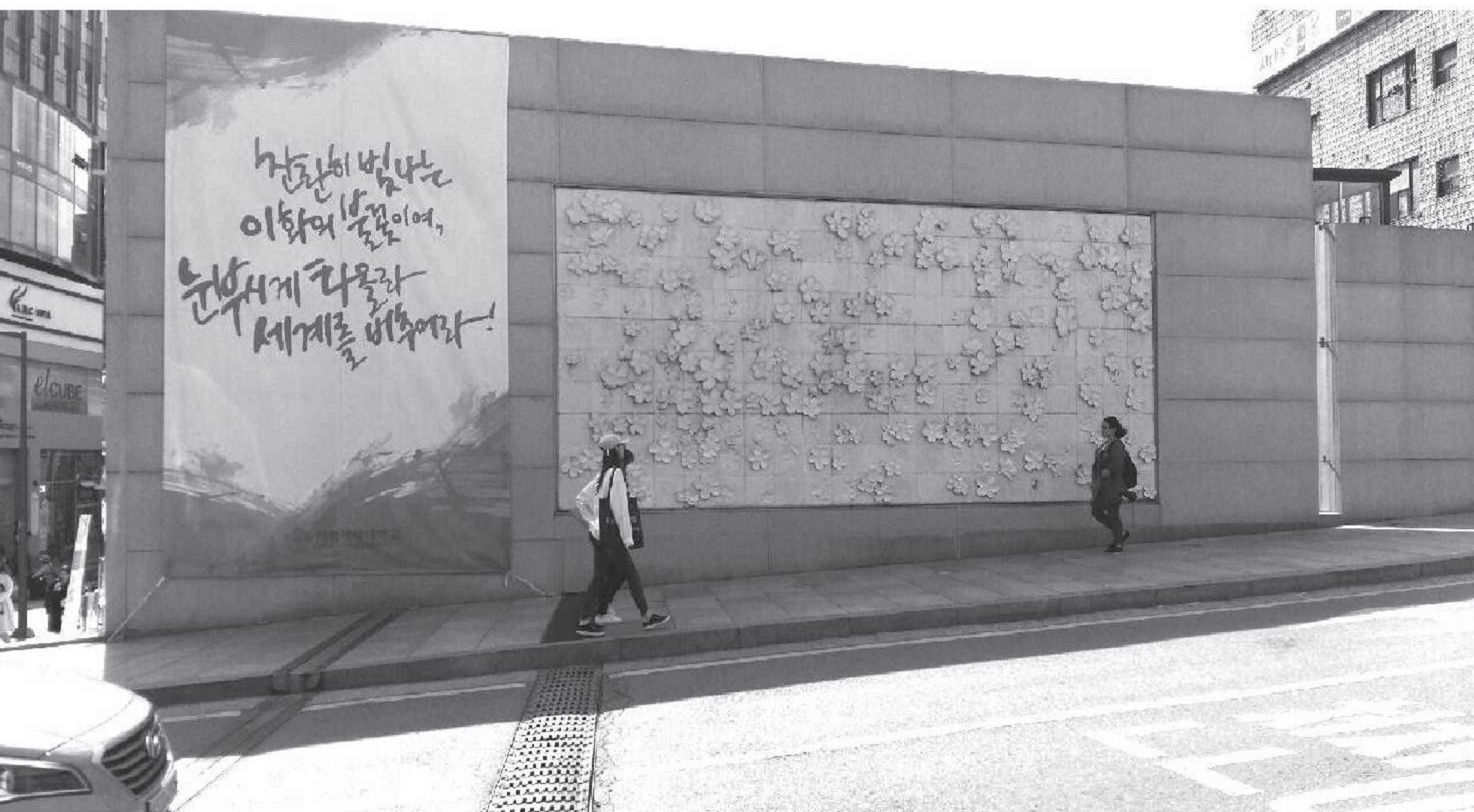
## 세상이 이화에게 묻는다면

서울 한복판 광화문 네거리의 한 빌딩에는 계절마다 큼지막한 글판이 내걸린다. 올해로 27년째 계속되고 있는 ‘광화문글판’. 글판이 바뀔 때마다 뉴스가 될 만큼 주목을 받고 있다. 짧고 간단하지만 삶의 의미와 진실을 명료하게 전하는 문구들은 대개 어느 시에서 빌려온다.

신촌의 모교 정문에도 이 못지않게 시선을 끄는 글판이 등장했다. 외부에서 정문을 향할 때 왼쪽 날개에 해당하는 벽면을 큼지막하게 채우고 있는 ‘이화글판’이다. 여느 해 못지않은 혹서가 예고되어 있는 2017년 봄과 여름의 길목, 이화글판이 내는 목소리는 ‘찬란히 빛나는 이화의 불꽃이여, 눈

부시게 타올라 세계를 비추어라!’이다. 이열치열을 마다하지 않는 젊은이의 호기로움이 불끈불끈. 광화문 네거리의 글판이 ‘삶’에 대한 나눔과 궁리라면, 이화글판은 이화인이 학교를 통해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고민과 학교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

‘이화글판’의 시작은 재학생의 제안이었다. 재학생 온라인 커뮤니티 ‘이화이언’에서 학교 홍보를 위한 슬로건을 직접 만들어 학교에 제안하자는 학생들의 의견이 모아진 것이 2014년 10월. 학생들이 온라인 투표를 통해 선정한 안을 학교에 제안하고, 학교가 이를 선뜻 수용해 ‘이화글판’을 신설해 정문에 내건 것이 2015년 1월이니, 그야말



회차	날짜	캐치프레이즈
1	2015년 1월	세상은 이화에게 물었고, 이화는 그대를 답했다
2	2015년 4월	세계는 그대를 원한다, 이화를 머금은 그대
3	2015년 9월	이화를 통해 세계로 피어날 그대라는 꽃
4	2016년 1월	이화의 닻을 올려 세계를 항해하라, 그대의 꿈은 결코 가라앉지 않을 것이니
5	2016년 5월	어제의 이화, 오늘의 그대, 세상의 내일
6*	2016년 10월	130년 이화의 혁신, 새로운 가치로 태어나다 (모교 관련 주요 키워드를 생일케이크 모양으로 이미지화)
7*	2016년 12월	성과로 빛나다, 이화여대(국가고시 수석합격 등 2016년 이화여대 성과 나열)
8	2017년 4월	찬란히 빛나는 이화의 불꽃이여, 눈부시게 타올라 세계를 비추어라!

\* 6, 7차 이화글판은 홍보팀 제작

로 진행이 빛의 속도 급이다. 첫 이화글판인 ‘세상은 이화에게 물었고, 이화는 그대를 답했다’는 김윤이(경제 13학번) 씨의 문구는 노현지(생명과학 12학번) 씨의 멋글씨로 디자인되었다.

이화와 세상을 호방하고 따뜻하게 연결한 첫 이화글판은 기념품(클리어파일)으로 제작돼 학교 방문객에게도 전해진 바 있다. ‘이화’라는 소중한 가치를 매개로 재학생, 교직원, 동창은 물론이고, 이화를 아끼고 고민하는 마음들이 오가는 소통의 긍정적 예가 아닐까.

이화의 새로운 역사요, 한 얼굴이 될 이화글판 제작에 동참하고 싶은 동창은 매학기(3~4월 또는 10~11월) 열리는 ‘홍보 아이디어 공모전’의 캐치프레이즈 및 캘리그래피 부문을 눈여겨보시라. 이화글판은 1년에서 1년 차례 새 옷으로 갈아입는다.

글·박종분(중문 89, 이화동창 편집위원)

### 홍보 아이디어 공모전 개요

- **참가 자격 :** 모교 재학생(학부, 대학원), 교직원, 이화동창(개인 또는 팀 응모 가능)
- **작품 주제 :** 이화인의 자기주도적 미래 설계 역량, 진취적·창의적 태도, 나눔과 섬김 정신을 부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주제는 매회 달라질 수 있음)
- **참가 분야 :** 기획 / 광고 포스터 / 캐치프레이즈\* / 캘리그래피\* / UCC / 웹툰  
\* 캐치프레이즈 : 정문에 게시될 이화글판을 위한 문구(자유 양식)  
\* 캘리그래피 : 정문에 게시될 이화글판을 위한 멋글씨(JPEG 또는 AI)
- **시상 내역 :** 최우수상(1명) 상금 70만 원 / 우수상(3명) 상금 30만 원 / 장려상(5명) 상금 10만 원 / 격려상(50명) 식음료 기프티콘
- **문의 :** 기획처 홍보팀 02-3277-2048
- 자세한 내용은 모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세요.

### 사회과학대학

회장\_\_한인영(사복 72)

#### 다양한 모임을 통해 동창회 발전방향 논의

4월 18일(화) 최은봉(정외 81) 학장, 정은경(문정 93) 부학장과 모임을 갖고 대학 측과 동창회와의 원활한 소통 및 동창회 발전방향에 대하여 의논하였다. 4월 25일(화) 학과 회장단 모임을 개최하여 2017년도에 새로 임명된 신은영(정외 86) 회장, 조혜민(문정 86) 회장, 함승희(커미부 78) 회장을 비롯하여 9개 학과의 회장들이 참석하였다. 회장단은 사과대 동창회의 연중행사와 동창회의 발전방향을 의논하면서 화목을 도모하였다.

5월 2일(화)에는 사과대 동창회 빌족 아래 회장을 맡아 수고한 전임 회장들을 초대하여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하였다. 김판숙(사복 58)·김미령

(커미부 69)·이양준(정외 70)·김이경(문정 77) 전임 회장이 참석하여, 동창회 발전을 위한 조언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 음악대학

회장\_\_임진(작곡 72)

#### 이화 창립 131주년 기념 '2017 이화 뮤직 페스티벌'

창립 131주년 이화를 밝히는 '2017 이화 뮤직 페스티벌'이 5월 15일(월)부터 6월 2일(금)까지 음악대학 김영의 홀에서 6개 과가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또한 5월 31일(수) 동창의 날 행사에서는 30주년 재상봉 대표로 이승희(피아노 87) 동창이 연설을 하여 감동과 추억을 선사하였다. 졸업 30주년 박은혜(작곡 87, 모교 작곡과 교수)



새로 임명된 각 학과 회장들과 모임을 가진 사과대 동창회



창립 131주년 기념 '2017 이화 뮤직 페스티벌'을 개최한 음악대학

동창은 후배들을 위해 200만 원을 음대 장학금으로 쾌척하였으며, 졸업 50주년 방명혜(기악 67) 동창은 100만 원을 음대 동창회에 후원하였다. 음악대학 동창회는 앞으로 더욱더 합력하고 발전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고자 한다.



고 김애마 선생을 기리는 이장예배에 참석한 사범대학 동창들

## 사범대학

회장\_\_신경희(수교 77)

### 고 김애마 선생 이장예배

5월 11일(목) 국내 사립대학 최초로 이화 사범대학을 설립한 고 김애마 선생의 이장예배가 있었다. 경기도 양평에 위치한 국립하늘숲추모원에 안인희(교육 49) 선생 등 제자들과 성효현(사회과 교육 78) 학장을 비롯한 교수와 직원, 동창 등 30여 명이 참석하여 생전의 김애마 선생의 이화사랑 교육정신을 기렸다.

그동안 경기도 파주 기독공원묘원에 김애마 선생을 모시고 추모예배를 지내왔는데 지난해 추모 20주기를 끝으로 이번에 양평으로 이장하였다.

5월 26일(금)에는 이화 창립 131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인 ‘Emma Lecture 2017’이 개최되어, ‘인공지능과 뇌공학의 시대, 교육의 미래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주제로 정재승 KAIST 교수의 특강이 있었다. 강연장을 가득 메운 학생과 교직원, 동창들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문제에서 인공지능을 제어할 수 있는 인간과 인간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협업하는 인간을 교육하기 위해서 대학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뜨거운 관심과 호응을 보냈다. 특강 이후 김애마 홀에서 온

## 간호대학

회장\_\_조혜숙(간호 76)

### 고 이정애 선생 63주기 추모예배

5월 10일(수), 가평 이화수목원에서 간호학부 교수, 동창, 학생 등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 이정애 선생의 63주기 추모예배가 열렸다. 이날 예배에서는 모교 명예교수 이자형(간호 70) 동창이고 이정애 선생에 대한 소개 및 이화간호 역사에 대한 강의를 통해 고인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 고 이정애 선생은 이화학당 대학과 졸업 후 1928년 하와이로 유학하여 간호학을 전공한 한국인



고 이정애 선생 63주기 추모예배에 참석한 간호대학 동창들

최초의 간호사로, 1937년 영국에서 개최된 ICN 대회에도 한국 최초로 조선을 대표하는 간호협회 회장으로 공식 참가한 바 있다. 이자형 동창은 고 이정애 선생의 한국 간호의 선구자로서의 공로와 역사적 의의를 전하며, 이화간호의 역사 재정립을 위한 동창들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 약학대학

회장\_\_ 박하영(약학 77)

### 약대 선교부 31주년 기념 감사예배

3월 9일(목) 오전 11시 수담 한정식에서 총 54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임원회 및 기대표 모임을 가졌다. 서기보고, 회계보고에 이어 주홍장학회 경과보고 및 약대 약학연구소를 후원하는 약연후원회 경과보고도 있었다. 각 부 보고 및 안건에서는 5월에 열릴 동창의 날 합창제 참가에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하고, 올해가 약대 동창회가 설립된 지 60주년이라 8월에 발행 예정인 동창회 소식지를 특집호로 준비할 계획이니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공지하였다.

4월 6일(목) 파주시 광탄면에 있는 요양원을 방문하였다. 강혜식(약학 62) 동창이 원장으로 30여

년이 넘게 봉사하는 이곳을 총 56명의 동창이 참석하여 445만 원을 성금으로 전달하였다. 까투리 무용단의 한국 고전무용, 장고춤, 부채춤, 벨리댄스, 악대합창단의 <어머나>, 서울대 출신 색소폰 콰르텟 S-With의 <아빠의 청춘> 등을 모두 같이 합창하며 흥겨운 시간을 가졌다.

4월 26일(수) 서울숲에서 열린 제36회 화합의 날 행사에 총 197명의 동창이 참여해 호황을 이루었다. 올해 졸업 40주년이 되는 약대 28회(제약 7회) 동창들이 김밥과, 떡, 간식, 음료를 손수 일인분씩 포장해서 준비해 주었고, 동창회에서는 기념품으로 타월을 후원하였다. 임원들이 기증한 선물로 숲길 산책을 겸하여 보물찾기도 하고 행운권 추첨도 하여서 집으로 돌아가는 손에는 동창들의 풍성한 사랑과 하나 됨이 담겼다.

5월 2일(화), 약대 약학관 B동 108호(교수휴게실)에서 1976년 졸업한 27회(제약 6회) 동창들의 주관으로 총 26명이 모여 약대 선교부 설립 31주년 감사예배를 드렸다. 조동천 목사(신촌교회)가 <부활에 대한 반응>(마 28:5·15)에 대한 말씀을 전해 주었다. 1회 최혜정(약학 49) 동창이 오랜만에 참석하여 감동을 주었고, 선교장학금을 받았던 동창이 졸업 후 첫 월급에서 100만 원을 선교장학금으로 후원해 주었다는 소식을 듣고 참석한 동창들은 큰 감동과 기쁨을 느꼈다.

## 생활환경대학

회장\_\_ 최인순(의직 79)

### 아령회총회에서 신임 회장단 출범

생활환경대학은 3월 30일(목) 아령당에서 총회



197명 동창이 참여한 약대 동창회 화합의 날

를 가졌다. 김숙희(가정 60) 명예교수를 비롯한 30여 명의 동창들이 모여 뜻깊은 행사를 가졌다. 이날 총회에서 2017년 신임 회장단이 출범하였다. 새 회장에 최인순 동창, 부회장에 양재완(가관 79) 동창을 비롯한 6명의 상임위 부회장, 그리고 업무별 부장단들, 총무와 간사를 포함한 총 15명의 임원진들로 구성하여 앞으로 생활환경대의 발전과 화합을 위하여 활동하게 된다.

지난 5년간 수고하며 아령회를 이끌어준 임정희(가관 79) 전임 회장과 유정희(의직 83) 전임 총무에게 감사패를 증정했고, 김숙희 명예교수는 가정대 복원추진을 위한 기금으로 5,000만 원을 기부하여 동창들에게 큰 감동과 도전을 주었다.



아령당 열린 아령회 총회에서 김숙희 명예교수와 전임 회장단, 신임 회장단을 비롯한 여러 동창들이 화합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최인순 신임 회장의 멋진 리더십과 동창들의 적극적 참여 및 교제와 소통을 통해 생활환경대가 새롭게 도약하길 기대한다.

과(학부) 순서로 게재

## 과(학부) 소식

### 불어불문학과

회장\_\_배혜화(77)

#### 불문과 창립 60주년 기념 총회

이화여대 불어불문학과 동창모임 ‘아미회’는 4월 19일(수) 불어불문학과 창립 60주년을 맞이하여 모교 ECC 이삼봉홀에서 총회를 열었다. 많은 동창이 참여한 이날 총회에서 은사님들과 역대 동창회장들에게 감사 선물을 전달하였고, 신구

임원 교체와 새 임원진 소개도 있었다.



창립 60주년을 맞이하여 총회를 치른 불문과 동창들

## 독어독문학과

회장\_\_이봉무(72)

### 시 낭송과 함께한 2017년 정기총회 및 신입동창 환영회

4월 6일(목) 독문과 원어연극동아리가 <호모 엠파티쿠스(Homo Empathicus)>를 국내 초연하게 되어 동창회 임원단이 공연을 관람하고 격려금을 전달하였다.

4월 27일(목) 오후 6시 노보텔 앰버서더 호텔에서 2017년 정기총회 및 신입동창 환영회를 개최하였다. 윤지양(16, 2017년 한국일보 신춘문예 시 부문 당선) 동창을 초대하여 시 낭송의 시간을 마련하였으며, 신입 동창들을 축하하며 기념품을 전달하였다.

5월 31일(수) 이화 창립 131주년 기념일을 맞아 1회 졸업생(1967년 졸업) 15명이 모교를 방문하여 총동창회에 특별 기부금을 전달하였다. 1회 졸업생 동창들은 졸업 50주년을 맞아 남도여행을 준비하며 가쁜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또한 올해 졸업 30주년(1987년 졸업)을 맞는 동창들도 홈커밍 데이를 마련하여 즐거운 추억을 나누었다.



정기총회 및 신입동창 환영회를 개최하고 신입 동창을 환영하는 시간을 가진 독문과 동창들

## 사학과

회장\_\_한혜련(75)

### 군산으로 봄 정기답사 다녀와

3월 23일(목) 용수산에서 간사회를 열었다. 간사회의 여러 활동 보고와 연초에 수립한 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4월 27일(목) 간사회 봄 정기 답사가 있었다. 이번 답사지는 전북 군산으로, 군산세관, 동국사, 신흥동 일본식 가옥, 군산근대역사박물관, 군산근대건축관(조선은행 군산지점) 등을 돌아보았다. 특히 이번 답사는 한국근대사의 현장이면서 식민지 시기 수탈의 대상이었던 지역을 찾아봄으로써 역사의 교훈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귀중한 기회가 되었다.

5월 25일(목) 용수산에서 열린 간사회에서는 ‘올해의 이화인(29회 김점숙)’ 선정에 관한 보고와 6월 22일(목)로 예정된 총회 개최에 대해 안내하였다.



전북 군산으로 봄 정기답사를 다녀온 사학과 동창회

## 문화정보학과

회장\_\_조혜민(86)

### 중앙도서관에서 정기총회 개최



선후배 간 네트워킹을 강화한 문헌정보학과



동해 및 강릉으로 1박 2일 야유회를 다녀온 화학과 동창들

2017년 정기총회 및 신입 동창 환영회를 5월 13일(토)에 모교 중앙도서관에서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동창회 정기총회 및 신입 동창 환영회, 문헌정보학과 소식 및 장학증서 수여, 행운권 추첨 등이 있었다. 퇴임한 은사님들과 1963년에 졸업한 제1기 대선배부터 재학생까지 총 78명이 참석하여, 선후배 간 네트워킹 강화와 문헌정보학과 발전을 도모한 소중하고 뜻깊은 시간이었다.

그램으로 구성되었다. 따뜻한 봄 날의 파란 하늘과 바다, 흐드러지게 만개한 벚꽃과 동창들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어우러진 즐거운 시간 속에 끈끈한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 화학과

회장 \_ 황북기(83)

### 강릉으로 1박 2일 봄 야유회 다녀와

4월 7일(금)부터 8일(토)까지 동해 및 강릉으로 1박 2일 봄 야유회를 다녀왔다. 화학과는 매년 4월 ‘녹화회 봄 야유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격년으로 1박 2일 야유회를 운영해 오고 있다. 이번 야유회에는 1960년도 졸업 동창부터 1997년도 졸업 동창까지 64명의 동창이 함께하였으며, 추암 촛대바위 탐방을 시작으로 정동진까지 바다열차 탑승, 하슬라아트월드뮤지엄 관람, 오죽헌 관람, 강릉 경포대 벚꽃축제 행사장 방문 등 다양한 프로

## 피아노과

회장 \_ 이귀란(90)

### 9명의 동창이 이화뮤직페스티벌에 참여

이화 뮤직페스티벌 피아노과 음악회가 6월 2일(금) 음악대학 김영의홀에서 열려 고은별(99)·이윤정(99)·김시내(04)·배나경(09)·배현지(09)·신자연(09)·이인현(09)·정인미(10)·곽예림(12) 동창이 연주하였다.



이화 뮤직페스티벌에 참여해 연주를 한 피아노과 동창들

## 관현악과

회장 \_ 김정미(90)

### 김영의 훌에서 관현악 트리오 연주

5월 19일(금) 7시 김영의 훌에서 열린 이화 뮤직 페스티벌에서 바이올린 이지은(08)·플루트 김현경(10) 동창과 피아노 임영진(대학원 16) 동창이 〈Nino Rota Trio for Flute, Violin, and Piano〉를 연주하였다.



김영의 훌에서 연주 중인 관현악과 동창들



30주년 음악회에서 열창하는 성악과 중창단(플루트: 최연수(관현 87), 피아노: 김문정(피아노 87))

시작한 30주년 기념연주는 1987년 졸업한 피아노·관현·성악·작곡·종음·한음 동창 등 모든 졸업생이 모여 독주와 앙상블, 중창단 등으로 꾸민 멋진 음악의 향연을 들려주었다.

## 작곡과

회장 \_ 문성희(80)

### 이화 뮤직페스티벌에 참여

이화 뮤직페스티벌이 5월 19일(금) 저녁 7시에 모교 음악대학 김영의 훌에서 열렸다. 이날은 작곡과, 관현악과, 그리고 한국음악과가 함께하였고, 작곡과에서는 설수경(03)·백은숙(06)·유영우(06) 동창의 곡이 연주되었다.



작곡과 유영우, 설수경, 백은숙 동창(사진 왼쪽부터)

## 성악과

회장 \_ 최혜인(90)

### 가곡과 오페라 아리아로 꾸며진 무대

음악대학의 이화 뮤직페스티벌은 5월 15일(월) 김영의 훌에서 오후 5시에 성악과를 시작으로 열렸다. 음대 성악과 교수 신지화(84) 동창을 비롯하여 한나형(96)·윤현정(05)·여지영(09)·정지원(09) 동창과 배은아(피아노 90)·한미연(피아노 01) 동창의 피아노 반주에 맞춰 아름다운 가곡과 오페라 아리아로 꾸며진 무대였다.

한편 5월 30일(화) 김영의 훌에서 오후 7시에

## 종교음악과

회장\_\_최은희(81)

### 역대 최다수 연주자 출연 기록 세워

5월 29일(월) 오후 7시 김영의 홀에서 연주회를 개최하였다. 종교음악과 창립 50주년을 기념한 이번 음악회는, 오르간 손경순(81)·한은미(87) 동창, 피아노 이은경(87)·한정원(87) 동창, 성악 이금희(81)·고은경(87)·김미정(87)·김혜옥(87)·오혜영(87)·윤정원(87)·홍선헤(87) 동창, 내레이션 이유경(81) 동창과 이화 그레이스콰이어(지휘: 김원복(78), 피아노: 정수연(01), 오르간: 유민주(02)) 등 50명이 넘는 최다수 연주자들이 출연하는 기록을 세웠다. 특히 ‘가족 음악회’라는 부제답게 김미연(87) 동창의 아들 이들림(서울대 2학년 재학 중) 군과, 동창들의 남편, 제자, 자녀들이 함께 참여해 더욱 감동적인 자리가 되었다.



거문고 실내악을 선보인 한국음악과 동창들

5월 19일(금) 저녁7시 음악대학 내 김영의 홀에서 개최된 이화 뮤직페스티벌에서 이화국악실내악단과 거문고 실내악을 연주하였다.

## 조소과

회장\_\_이선희(81)

### 모교 총장 선거에 소중한 한표 행사

3월 28일(화) 이화아트센터에서 열린 비전 이화미술인전과 5월 23일(화) 조형관과 ECC 대산갤러리에서 열린 메이데이 학생작품전 행사에 이선희 회장이 참석하여 후배들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한편 5월 24일(수) 16대 모교 총장 선거에 조소



역대 최다수 연주자가 무대에 오른 종교음악과

## 한국음악과

회장\_\_최혜정(90)

### 이화국악실내악단의 거문고 실내악 연주



졸업 50주년·30주년 동창들과 한데 모인 조소과 동창들

과 동창 11명이 참여하여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였다. 5월 31일(수) 이화 창립 131주년 동창의 날 기념행사에 ‘올해의 이화인’으로 주이향(87) 동창이 선정되어 자리를 빛냈고, 졸업 50주년 동창인 박영선(67) 동창과 졸업 30주년 동창들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 섬유예술과

회장\_ 이상미(88)

### 섬유예술과 동창총회 개최

3월 31일(금) 이화·삼성교육문화관 9층 대회의실에서 동창 약 55여 명이 모여 섬유예술과 동창총회를 개최하였다. 1,2부로 나누어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1부에서는 이효범(61) 초대 회장을 주축으로 한 신구 임원의 소개와 신입 회원들의 환영의 자리가 있었다. 지난 임원진들의 사업 보고 및 회계 감사 보고가 있었고, 참석 회원들의 소개에 이어 2017년 사업계획안을 보고하였다. 2부에서는 동창 브랜드 상품 소개, 소장 작품 소개와 현재 동창들의 소식들을 알 수 있는 시간을 갖고, 맛있는 식사와 행운권 추첨시간을 통해 다시금 선후



선후배 간의 돈독함을 느낀 섬예과 동창들

배 간의 돈독함을 느낄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 유아교육과

회장\_ 유청옥(88)

### 꽃 브로치로 은사님께 감사의 마음 전해

5월 13일(토) 밀레니엄 서울 힐튼호텔에서 사범대학 유아교육과 동창회가 퇴직 은사와 현직 교수들을 초대하여 스승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다. 올해 행사에는 졸업 30주년을 맞이하는 1987년 졸업 동창들을 비롯하여 전·현직 동창회 임원과 유아교육 및 보육현장에서 활동하는 동창들이 참석



매년 스승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 유아교육과

하였다. <스승의 은혜> 노래를 함께 부르고 은사의 가슴에 꽃을 수놓은 브로치를 달아드리며 스승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1부는 박희경(89) 부회장의 사회와 안영주(88) 선교부장의 기도로 시작하여 유청옥 동창회장의 감사인사, 선물 증정 및 축하케이크 컷팅, <스승의 은혜> 합창으로 진행되었다. 이정환(교육 55)·이기숙(72) 선생님은 참석한 제자들에게 덕담을

해주었고 참석한 현직 교수와 동창은 자기소개와 함께 은사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화기애애한 담소와 함께 식사를 마친 후 2부 순서로 ‘정 트리오’를 초청하여 영화음악 및 클래식 연주를 감상하였고 모두의 동심과 꿈을 담은 동요를 함께 부르는 작은 음악회도 열었다.

## 국제사무학과

회장 \_\_ 송유경(85)

### 정기총회 및 신입동창환영회 개최

국제사무학과의 정기총회 및 신입동창환영회가 지난 4월 29일(토) 캐피탈호텔에서 원로 동창과 역대 회장, 현직 교수 등을 비롯 약 60여 명의 동창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1부에서는 송유경(14기) 동창을 새로운 회장을 선출하고, 지난 회계를 결산하는 정기총회를 개최하였으며, 신입동창을 환영하고 학과 장학금을 수여했다. 2부 행사는 팝송을 배우는 시간, 경품 추첨 등이 진행되어 친목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송유경 신임회장은 “동창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화여자대학교 국제사무학과 정기총회 및 신입동창환영회



정기총회 및 신입동창환영회를 연 국제사무학과 동창회

## 의류직물학과

회장 \_\_ 최비숙(80)

### 성황리에 치른 문화탐방 행사

5월 23일(화) 서울미술관에서 문화탐방 행사를 시작하였다. 신사임당전에서는 도슨트와 함께 그녀의 삶을 재조명해 보았고, 오치균전과 카페소사이어티 전으로 근현대 및 컨템포러리 작품까지 시간을 관통하며 관람하였다.

이어 대원군 별서 석파정에서는 한옥 뒷마루에 앉아 담소를 나누며 벚과 함께 부암동의 경관을 즐겼다. 6월에도 문화행사와 함께 더 많은 동창들과 다시 만나기로 하며 첫 행사를 성황리에 마감하였다.

동창의 날인 5월 31일(수) 생활환경관에서 의류산업학과 메이데이 학생작품전이 열렸으며, 216호에서 열린 과제 발표회에서는 우수작품 선정자에게 최비숙 동창회장이 상패 및 장학금을 수여하였다. 이 자리에 신산업융합대학 최애경(국제사무 78) 학장과 부학장이 참석하여 학생들을 독려하였다. 임원진은 학생들의 수준이 매년 높아지는 데 감격하며 동창으로서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겠다고 하였다.



첫 문화탐방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른 의류직물학과 동창회

# 지회 소식

가나다순으로 게재

## 남가주(LA) 지회

회장\_\_장경해(피아노 75)

### 샌디에이고 크루즈 일일관광

5월 6일(토)에 54명의 동창이 참석한 가운데 샌디에이고 일일관광을 다녀왔다. 첫 행선지인 Point Loma에서 감탄사가 절로 나올 정도로 아름다운 바다를 바라다보며 속이 탁 트이는 느낌이 들었다. 점심 식사를 마친 후에 1시간 30분 동안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크루즈를 즐겼다. 선 선하고 무덥지 않은 날씨에 햇빛도 따갑지가 않아서 쾌적한 관광을 즐길 수 있었다.

마지막 행선지인 Old Town에서는 길거리에서 하는 쇼도 보고, Tustin에 있는 Korean 바비큐 식당에서 맛있고 푸짐한 저녁식사를 한 후에 아쉬

운 작별인사를 나누었다. 참석했던 많은 동창들이 동창회에서 이런 여행을 자주 기획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열심히 준비한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특히 젊은 동창들이 관심을 가지고 많이 참석해 주어 감사했다. 앞으로도 여러 선후배가 함께하는 모임들을 준비하여 동창회가 한마음으로 단합하며 성장해 나가길 기대해 본다.

모교 교수를 18년간 역임하고 교목실장을 지낸 조찬선 목사님의 100세 기념 예배가 5월 7일(일) 오후 4시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Rowland Hts.에 있는 연합감리교 Baker Home Fellowship Hall에서 있었다. 이날 참석한 동창들은 조 목사님의 뛰어난 유머 감각 때문에 즐거웠던 일들을 회상하며 특히 모교 대강당에서 있었던 채플 시간을 그리워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찬선 목사님은 아직 보청기도 사용하지 않고 건강하며, 왕성하게 책을 집필하신다고 하여 모두들 감탄하였다.

오래 전에 목회했던 벨리 연합감리교회의 장로들이 앞치마를 입고 음식을 서빙하는 모습이 무척 인상적이고 아름다웠다. 이날 남가주 지회 산하 모임 중 하나인 O.C. 모임(회장 박광순, 기독 64)이 주축이 된 30여 명의 동창이 감사예배에 참석해서 목사님의 백수를 축하했다.



샌디에이고로 크루즈 일일관광을 다녀온 남가주 지회 동창들

참석한 동창 중 20여 명이 즉석에서 이영애(성 악 57) 동창의 지휘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찬양하였는데, 연습도 제대로 못했는데 화음과 감정을 잘 살려서 앵콜 요청과 함께 큰 박수를 많이 받았다. 또한 이영애 동창과 서명숙(성악 71) 동창의 2중창 특별 찬양순서도 있었다. 다시 한번 단결된 ‘이화인’의 자부심과 긍지를 느낄 수 있는 날이었다.

## 뉴욕 지회

회장\_\_박영숙(경영 86)

### 정기총회, 맨해튼 지역 모임 등

3월 21일(화), 정기총회가 맨해튼에서 열렸다. 지난해 활동보고와 재무감사발표가 있었으며, 10월 26일(목)부터 29일(일)까지 뉴욕에서 열릴 북 미주지회연합회총회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역할 분담을 논의하였다. 또한 6월 30일(금)이 마감인 장학생 모집에 관한 광고가 있었다.

4월 22일(토), 맨해튼 지역모임이 맨해튼 소재 Barn Joo에서 있었다. 일선에 있는 동창들 간의 의견 교류와 대선배들의 인생 철학을 귀담아듣는



맨해튼에서 열린 정기총회에 참석한 뉴욕 지회 동창들

행복한 토요일 오후였다. 또한 많은 동창들이 북 미주지회연합회 총회를 위한 후원금과 의견을 내주어 감사한 시간이었다.

4월 27일(목), 미대 졸업생의 모임인 녹미회(회장 김은주, 조소 80) 연례전시회가 맨해튼 소재 K&P 갤러리에서 성황리에 있었다. 대선배인 김옥지(생미 68)·김여란(서양 63) 동창을 비롯 많은 반가운 얼굴들을 만날 수 있는 자리였다.

## 미네소타 지회

회장\_\_홍성주(경영 89)

### 미네소타 한인회관에서 총회 모임 가져

4월 28일(금) 미네소타 한인회관에서 총회 모임이 있었다. 딱 좋은 봄날씨에 화사하게 봄옷으로 단장한 선후배들이 설레는 마음으로 모임에 참석했다. 심현숙(사복 62)·안종완(법학 62)·이명순(피아노 70)·한선희(융합보건 70)·한진혜(제약 74)·차정혜(심리 77)·김성숙(사회 85)·홍성주(경영 89)·김지언(수학 91) 동창이 모였는데 노스다코타에서 이사 와 처음으로 동창회에 참석한 이명순 동창을 환영하며 각자 소개의 시간을 가졌다.



친목 도모와 강의로 유익한 시간을 보낸 미네소타 지회

다. 몇몇 동창들이 실력을 발휘한 맛난 음식들과 홈메이드 디저트로 점심을 맛나게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로 웃음을 피웠다.

마지막으로 약사인 한진혜 동창이 뇌졸중의 전조증상과 그때 해야 할 응급 처치 등 필수 의학 상식에 대해 강의를 해주었고, 상비약으로 꼭 가지고 다녀야 할 아스피린 등을 동창들에게 챙겨주는 등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 보스턴 지회

회장\_\_박순혜(국문 73)

### 실크 염색 체험으로 알찬 시간

3월 25일(토) 김홍혜(가정 64) 이사장 집에서 13명의 동창이 모여 동창 모임을 가졌다. 보스턴 교외의 아름다운 자택의 작업실에서 실크 염색 과정을 배우고, 염색 체험을 하였다. 참석한 동창들이 한 번씩 붓으로 염색한 것을 김홍혜 이사장이 마무리 작업을 해주기로 하였다. 스텀 후에 여러 번 헹구어 말리고 다리면 작품이 완성된다고 한다. 다음 번 모임에 우리들의 결작품에 다같이 사인하기로 하였다.



김홍혜 이사장 집에서 염색 체험을 한 보스턴 지회 동창들

맛있는 요리와 염색 체험학습을 수일 동안 정성들여 준비해준 김홍혜 이사장과 푸근한 정으로 맞아준 부군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직접 만든 쿠션 작품을 하나씩 선물받아 가슴에 안고 집으로 돌아오는 동창들의 마음에 무지개가 떠올랐다.

## 북텍사스 지회

회장\_\_강정숙(심리 63)

### 동창 선교사에게 선교 현금 전달

3월 30일(목) 멕시코에서 선교하다가 미국에 잠시 들어온 이경화(무용 76) 동창과 몇몇 동창들이 댈러스 카페베넷에서 만나 이 동창의 선교활동 이야기를 흥미롭게 들으며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이숙재(무용 85) 이사장과 여러 동창들이 6개월 동안 꿀과 계피를 열심히 팔아 모은 모금을 이경화 동창에게 선교현금으로 전달했다. 참으로 뜻깊은 만남이었고 헤어짐이 아쉬웠다.

5월 15일(월) 오스틴에 사는 김미혜(물리 89) 동창을 통해 동창회에 새로 나오게 된 심경섭(교육 68) 동창과 웨이코에서 온 권나영(의직 96) 동창을 만나기 위해 오스틴에 있는 하나월드마켓 내 식



새로 나온 동창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진 북텍사스 지회

당에서 모임을 가졌다. 간단한 식사를 즐기며 강정숙 회장과 더불어 참석한 동창들과 새로 만난 선후배 간에 소개와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학창 시절 이야기, 미국생활 이야기로 대화의 꽃밭이 펼쳐졌는데 마치 우리 모두가 학창 시절로 돌아가 캠퍼스 식당에 앉아 수다 떠는 듯한 느낌이었다. 강정숙 회장은 새로 나온 동창들에게 이화수첩을 전달하였고, 다가오는 북텍사스 지회의 총회 모임에서 만나기로 약속하면서 헤어졌다.



4월 모임에 참석한 애틀랜타 지회 동창들

## 애틀랜타 지회

회장\_\_장명옥(영문 81)

### 설 명절을 기념해 모임 개최

3월 12일(일) 정규모임은 ‘선교의 달’ 모임으로 모두 31명이 참석하였다. 모임은 손수자(영문 68) 동창의 개회기도로 시작하여,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7년째 선교사로 있는 홍신옥(종음 73) 동창의 선교 보고가 있었다. 선교 동영상을 보면서 사역활동을 생생하게 간접 체험하는 시간이었다. 90% 이상이 무슬림인 그곳에서 사역하며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일까지 발생했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한다. 홍 동창은 몇 달간 이곳 애틀랜타에 머물며 재충전한 뒤 다시 사역지로 돌아갈 예정이다.

한편 황성희(유교 74) 동창은 ‘애틀랜타연합장로교회’ 전도사로 10년간 사역하며 매년 2~3회 단기해외선교를 감당하고 있다. 작년엔 우리 지회에서 지원한 선교비와 교회의 ‘어머니기도모임’ 후원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사역하고 있는 일부 ‘세계 여성 선교사님’들에게 ‘노아의 방주’ 가

그려진 가방(여성들에게 꼭 필요한 물건이 담긴)을 전달했다고 한다. 인도에서 가방을 받고 보낸 한 장의 감사 편지를 읽는 것으로 선교 보고를 마무리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다하고 있는 두 동창에게 감사하며 ‘선교 후원금’을 전달하였고, 홍신옥 동창을 모교의 ‘선교사 명단’에 추천 하자는 성정순(체육 49) 동창의 건의가 있었다. 한편 회계 김태원(피아노 86) 동창과 함께 일하게 될 제2 회계 김성숙(교공 92) 동창의 소개와 인사가 있었다. 또한 서정주(교공 75) 동창이 매달 동창회 정규모임과 골프회에서 사진 촬영을 도맡아 주어 한층 업그레이드 된 모임이 되고 있다.

전원숙(국문 59) 동창이 3월 15일(수)에 10년간의 이곳 생활을 정리하고 딸이 있는 뉴욕으로 이주하게 되어 무척 서운하였다. 3월이 생일인 유옥희(피아노 63) 동창을 축하하고, 오랜만에 나온 김금선(법학 87) 동창을 환영하는 시간도 가졌다.

4월 12일(수)에는 30명의 동창이 참석하였고, 김순희(법학 66) 동창이 개회기도를 하였다. ‘My Story’ 시간에는 정호문(불문 62) 동창이 프랑스 유학 중 ‘화가의 길’로 가게 된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그동안의 전시회 책자와 작품 등과 함께 인터넷사이트로 구입할 수 있는 소품들도 소개해주었다. 최인경(심리 89) 동창의 전시회 'Blue Willow'에 대한 소개가 있었고, 한국의 《수필시대》에 등단한 정문자(의학 66) 동창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부친상을 당한 유찬희(커미부 78) 동창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시길 빌었다. 4월과 5월에 생일이 있는 서정주·손수자·이미애(성악 89) 동창을 축하했고, 오랜만에 나온 최인경·김유정(동양 89) 동창을 환영하는 시간을 가졌다. 모교 총동창회 주최로 있을 '해외지회 동창 오찬 간담회'에 대한 광고와 안내지를 배포하고 모임을 마무리지었다.

## 영국 지회

회장 \_\_ 한진경(장미 92)

### 첫 회칙 제정, 만장일치로 통과

4월 28일(금)에 런던의 Aster Restaurant에서 열린 정기총회는 종전의 명칭인 '런던 지회'를 '영국 지회'로 개칭한 후 출발하는 의미 있는 첫



모교의 모습이 담긴 비디오를 상영한 영국 지회 동창들

번째 모임이었다. 모범적인 동창회로 성장하기를 기도하며 전국적으로 활발한 네트워킹을 바라고 있다.

이날 정미령(교육 66) 동창이 가져온 모교의 발전사를 담은 비디오를 함께 감상하였다. 변화된 노천극장을 이제야 보게 된 동창도 몇 명 있었고, 참석자들 모두는 모교의 모습을 보며 아련한 옛 추억에 빠졌다가 새로운 건물을 보고 감탄하며 모교의 발전사에 환호하였다.

영국 지회는 그간 회칙이 없었는데 금번 정기총회에서는 회칙을 새롭게 만들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회칙에 명기된 대로 3년간 회장단 5인이 지회를 운영하게 되었다. 회장에 한진경 동창, 총무에 흥시내(커미부 02) 동창, 이사 정미령·이육선(제약 73)·김인성(영문 80) 동창이 회장단을 맡게 되었다.

## 워싱턴DC 지회

회장 \_\_ 김성혜(보교 88)

### 음악 역사 특강 개최와 노숙자를 위한 음식 나눔

3월 13일(월) 노숙자들을 위한 푸드 팩킹 봉사 활동이 권주현(생미 96) 동창 집에서 진행되었다. 이사회 및 김경아(영문 85) 동창의 후원과 기부로 샌드위치와 스낵, 과일, 음료수 등 60인분을 준비하여 버지니아 Reston에 위치한 Embry Rucker Community Shelter에 전달하였으며, 참여한 동창들은 봉사활동 후 간단히 점심을 먹으며 선후배 간의 돈독한 시간을 나눌 수 있었다.

4월 3일(월)에는 우래옥 식당에서 모교 교가를 작곡하고 음대 교수를 지내셨던 안기영 선생의



안충식 박사의 음악 역사 특강에 참석한 웨싱턴DC 지회 동창들

아들 안충식 박사가 1985년부터 1950년까지 우리나라에 서양음악이 도입 전파된 과정을 주제로 ‘한국에 서양 음악의 도입’이라는 음악 역사 특강을 하였다. 강서라(음악 49)·백경진(피아노 50) 동창 등 음악을 전공한 동창들이 참석하여 더욱 의미 있었다. 특강을 마친 후 참석한 동창들과 함께 안기영 선생님이 작곡한 <그리운 강남>과 모교 교가를 제창하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화 국제하계대학 장학금 선정과 관련, 작년 보다 지원자가 3배 이상 늘어난 가운데 Austin Lee(Georgetown Univ, Junior)와 Christina Kim(UVA, Sophomore)가 최종 수혜자로 선정되었다. 한편 본 지회는 2월에 세인트루이스에 거주하는 최혜영(생미 86) 전도사의 선교 후원을 위해 최숙자(문정 69) 동창이 New Life Foundation을 통해 후원금을 전달하였다. 3월에는 고승현(통계 92) 동창이 몸담고 있는 KASM(Korean American Sharing Movement, Inc.) 단체에서 진행하는 탈북자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소개와 모교에 재학 중인 탈북자 학생의 미국 방문을 위한 체제비 모금 결과 박옥영(교육 61)·유연담(정외 62)·안경미(의학 69)·김경아(영문 81) 동창의 후원이 이어졌고,

최숙자 동창이 New Life Foundation을 통해 또 다른 탈북자 대학생을 후원해 주었다

5월 13일(토)에는 춘계 야유회가 Reston에 위치한 Lake Fairfax Park에서 열렸다.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60여 명의 동창과 가족들이 참석하여 이화인으로서의 친목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날은 많은 동창들의 광고와 기부금, 최진향(생미 91) 동창의 디자인과 인쇄 작업 도움으로 완성된 2017년 주소록이 준비되어 야유회에 참석한 동창들에게 배부되었다.

## 토론토 지회

회장\_\_ 권용옥(영교 74)

### 기도모임을 열고 모교를 위한 마음 담아

4월 18일(화) 박현애(사회과교육 81) 동창 집에서 햇불회 기도모임이 있었다. 목사 최경자(영문 63) 동창과 26명의 동창들이 모여 화음동호회의 찬양, 목사님의 말씀과 모교를 위한 중보기도로 기도 모임을 가졌다. 멀리 캐나다에 살고 있지만 조국의 안정과 모교를 위한 마음을 담아 기도를



High Park에서 봄나들이 모임을 한 토론토 지회 동창들

드렸다.

2부 순서는 이정준(가정 65) 동창의 남편인 석천 이상묵 시인의 ‘김종삼 시인과 이상묵 시인의 짧은 시들 소개(slide show)’ 시간이 있었다. 모임 후에 인근 사과밭을 산책하며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5월 16일(화)에 새싹과 꽃들이 아름다운 High Park에서 봄나들이 모임을 가졌으며, Old Mill Inn에서 점심식사를 하며 담소를 나누었다. 한편 2018년 토론토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 준비모임을 정기적으로 가지고 있다.

문 73)·장옥희(심리 73)·송미영(불문 76)·박경애(불어교육 76)·신현숙(동양 81)·함미연(불문 81)·김기영(초교 82) 동창 및 동창회 임원으로 홍성부 회장, 박현선(의직 91) 부회장, 박세연(서양 94) 총무, 박지은(가관 96) 서기, 함화진(컴공 02) 회계 등 총 15명의 동창이 참석하였다. 참석자들은 한식과 함께 담소를 나누며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 하와이 지회

회장\_\_이혜련(영문 84)

## 파리 지회

회장\_\_홍성부(생미 84)

### 신년모임 개최

파리 지회는 2월 23일(목) 14구에 위치한 한식당 수라에서 신년모임을 개최하였다. 봄 야유회 및 겨울 정기총회와 함께 파리 지회의 공식 연례 행사 중 하나인 올해 신년모임에는 이충석(심리 56)·민경화(국문 62)·이병주(불문 62)·오미자(불

### 봄 강연회 모임으로 뜻깊은 시간

5월 20일(토)에 봄 강연회 모임을 가졌다. 하와이 대 경제학과 교수이자 한국학센터 소장 이상협 박사를 모시고 ‘한국의 사회 경제와 여성’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들었다. 이번 모임은 이숙(사학 73) 동창의 배려로 아름다운 바다가 굽어보이는 Waiea Building에서 진행되었으며, 여성과 경제, 사회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짚어보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도 함께 고민해 보는 뜻깊은 시간이었



2017년 신년모임에 참석한 파리 지회 동창들



봄 강연회 모임에 참석한 하와이 지회 동창들

다. 강의 후엔 정갈한 음식과 다과를 나누며 동창들과 정겨운 대화의 시간도 가졌다.

## 휴스턴 지회

회장\_정미선(수교 85)

### 2명의 학생에게 장학금 수여

3월 걷기모임으로 Buffalo Bayou에 위치한 The Dunlavy에 11명의 동창이 모여 주변을 걷고 즐거운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4월 22일(토)엔 아침 7시부터 20여 명이 넘는 동창들이 모여 장학기금 마련 가라지 세일을 하여 후원금을 포함한 약 2,700달러의 기금을 마련하였다. 장학금 수여식은 5월 20일(토)에 지역 신문 기자와 학부모, 동창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차지유(UT Austin Studio Art 입학 예정)·박지우



사진 원쪽부터 구희경(사회과교육과 86) 장학위원장, 차지유 학생의 어머니, 차지유·박지우 학생, 정미선 회장

(Texas State Univ. Nursing 입학 예정) 학생에게 각 1,000달러의 장학금을 수여하였고, 참석한 동창 모두는 한 마음으로 축하해 주었다. 이 장학금은 한두 명의 후원이 아닌 동창 모두의 사랑과 정성을 모아 만든 장학금이라 그 의미를 더하였으며, 후학의 꿈과 비전을 돋는 밑거름이 될 것을 기대한다.

동

창

근

황

졸업연도 순서로 계재

### 김양식(영문 54) 동창

5월 6일(토) 김양식 동창이 관장으로 있는 인도박물관이 개관 6주년을 맞아 ‘타코르 탄생 156주년 기념-타고르의 시와 노래’ 행사를 열었다. 타고르의 시 <동방의 등불>, <기탄잘리>를 낭송하고 인도 전통 춤과 플루트 연주로 축하공연을 하였다. 이어 한국문인협회 회원들의 시낭송 퍼포먼스가 진행되었다.



김양식 동창

### 김명임(생미 63) 동창

4월 19일(수)부터 25일(화)까지 갤러리 라메르 제1 전시실에서 규방공예전을 열었다.



김명임 동창

### 이정자(조소 66) 동창

3월 17일(금) 전업미술가협회에서 KAPA 골드아티스트상을 수상하였다.



이정자 동창

## 정미령(교육 66) 동창

영국에 거주 중인 정미령 동창이 한국인 최초로 옥스퍼드 대에서 정년퇴임(72세)을 한 명예교수 위원(대학최고의결기구 은퇴위원회, Retired Member of the Congregation & Honorary Governor of HMC)이 되었다. 이로써 3월부터 대학 도메인을 유지할 수 있는 새 메일주소를 공급받았고, 학내 연구 도서시설에서 종신토록 전문분야인 발달심리학 연구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다.



정미령 동창

## 윤시향(독문 68) 동창

3월 6일(월) 세종아카데미 홀에서 윤시향 동창이 <예술과 문화 속의 파우스트: 연극 오페라 미술, 영화와 대중예술>을 강연하였다. 또한 3월 30일(목)부터 4월 16일(일)까지 윤 동창이 번역한 연극 <황혼(페터 투루니 원작, 명계남 출연)>이 재공연되었다.



윤시향 동창

## 강유순(약학 69) 동창

무궁화재단 이사장인 강유순 동창이 4월 27일(목) 한인 노인들을 위한 한인공공양로원 건립을 위해 100만 달러를 기부하였다. 복지단체 New Vista Society에서 2019년 완공되는 양로원은 총 7층 중 1개 층을 한인 전용시설로 꾸밀 예정이다. 강 동창은 밴쿠버한인장학재단 이사장으로 지역사회에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강유순 동창

## 안윤정(안희정, 독문 69) 동창

5월 31일(수) 모교 총장공관에서 이사장과 총장

으로부터 ‘발전기금 후원감사패’를 받았다.

## 이광자(간호 71) 동창

이광자 동창이 4월 21일(금) 모교인 진명여자고등학교에서 개교 111주년 기념 ‘자랑스러운 진명인 상’을 수상하였다. 한국 최초 자살위기 전화상담기관인 ‘생명의전화’를 개설한 이광자 동창은 자살예방 분야에서 40여 년간 활동한 ‘자살 예방 전문가’로 생명의 소중함을 전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모교 간호대 교수로 37년간 재직하였으며,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초대원장, 한국간호과학회 회장, 한국자살예방 협회 부회장을 역임하였다.



이광자 동창

## 최민숙(독문 71) 동창

모교 명예교수 최민숙 동창이 4월 28일(금)부터 29일(토)까지 국립목포대학교에서 개최된 ‘한국독어독문학 2017 봄철연합학술대회’에서 ‘변혁과 인간’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다. 강연 제목은 <문학과 자연과학 – E.T.A. 호프만을 중심으로>였다.



최민숙 동창

## 강승애(서양 72) 동창

강승애 동창이 양평군 강상면에 위치한 류미제 미술관(봄 파머스가든 갤러리)에서 4월 27일(목)까지 초대전을 열었다. 강승애 동창은 한국여류화가협회 이사장,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 부회장, 한국수채화 작가회 회원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강승애 동창

### 김보희(동양 74) 동창

모교 동양화과 교수인 김보희 동창이 내년 8월 정년퇴임을 앞두고 퇴임 기념 전시를 6월 1일(목)부터 10일(토)까지 모교 이화아트센터와 이화아트갤러리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전시는 김 동창이 미술 공부를 시작한 1970년부터 47년 간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동창은 1993년부터 모교에서 교수로 재직해 왔다.



김보희 동창

### 김영순(무용 74) 동창

현대 무용가 김영순 동창이 예술감독으로 있는 화이트웨이브무용단이 세계초연 작품 <아이-유-어스-위(I-You-Us-We)>를 5월 18일(목)부터 21일(일)까지 맨해튼 소재 라마마 극장 무대에 올렸다.

### 손병옥(영문 74)·권숙교(수학 80) 동창

손병옥·권숙교 동창이 여성가족부 선정 올해의 대표 멘토로 선정되었다. 손·권 동창 등 20명의 올해의 대표 멘토는 ‘2017년 청년여성 멘토링 사업’에 참여하여 청년여성들의 멘토가 되어 상담과 지도를 할 예정이다.



손병옥 동창

권숙교 동창

### 이혜원(조소 76) 동창

5월 31일(수)부터 6월 17일(토)까지 열린문화공간 예술의기쁨에서 개인전을 개최하였다.

김영란(조소 79)·이선희(조소 81)·나진숙(조소 84)·최승애(조소 85)·김선영(조소 89)·김

정연(조소 89)·지연신(조소 89)·김연(조소 91)·김양선(조소 94)·조은희(조소 94)·이지은(조소 97)·안경하(조소 99)·강선구(조소 02)·김순임(조소 02)·김다슬(조소 15) 동창

4월 12일(수)부터 16일(일)까지 Seoul International Art Expo전에 참여하였다.

### 문성희 (작곡 80) 동창

3월 30일(목) 저녁 8시 세라믹팔레스홀에서 작곡 발표회를 열었다.

### 홍영미(의학 80) 동창

4월 21일(금) 개최된 대한소아과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이대목동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로 재직 중인 홍영미 동창의 팀이 ‘우수포스터상’을 수상하였다. 홍동창은 국내외 학회에서 폐동맥 고혈압과 고혈압, 가와사키병 질환에 대한 활발한 연구활동을 펼치며 탁월한 연구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홍영미 동창

### 양숙자(간호 81) 동창

모교 간호대 교수 양숙자 동창 팀이 지난 2월부터 ‘캄보디아 간호지도자의 교육 및 연구역량 강화(2단계)’ 사업에 재착수했다. 2019년 12월까지 진행되며, 한국국제협력단으로부터 연간



양숙자 동창

3억씩 총 3년 동안 지원받아 운영될 예정이다.

### 정성민(의학 81) 동창

정성민 동창이 학술대회장을 맡은 제91차 대한이비인후과학술대회가 4월 21일(금)부터 23일(일)까지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개최되었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는 국제학술 대회로 치러져 세부 전공 각 분야의 해외 석학들을 초빙해 훌륭한 학문 교류의 장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 동창은 대한음성언어후두학회장(2011), 이화의학전문대학원장(2012) 등을 역임하였다.



정성민 동창

#### 김민선(김정배·관현 83) 동창

김민선 동창이 제35대 뉴욕한인회 회장으로 연임되었다. 뉴욕한인회 첫 번째 여성회장이었던 김동창은 이번 연임으로 33년 만에 연임에 성공한 첫 회장이 되었다. 현재 음악전문학교 롱아일랜드 컨서버토리를 운영하고 있다.



김민선 동창

#### 나진숙(조소 84) 동창

4월 3일(월)부터 29일(토)까지 갤러리 다함에서 개인전을 개최하였다.



나진숙 동창

#### 이지희(의학 84) 동창

모교는 임용 기간이 최소 5년이 넘는 교수 중 탁월한 연구 실적을 보인 교수를 ‘이화펠로우’로 선정해 학문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학과 이지희 동창이 이화펠로우로 선정되어 향후 3년간 연구장려금을 지원받게 되었다.



이지희 동창

#### 조영주(의학 84)·김민혜(의학 05) 동창

이대목동병원 알레르기내과 조영주·김민혜 동창이 최근 개최된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춘



계학술대회에서 <중증 급성 천식 악화로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의 사망 위험 요인> 이란 제목의 논문을 발표해 소오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조영주 동창



김민혜 동창



김희정 동창

#### 김희정(컴공 85) 동창

KBS 한국방송공사 미래기술연구소 소장으로 승진하였다.



김희정 동창

#### 박상희(컴공 85) 동창

행정자치부 스마트서비스과장(3급)에서 대통령직속 개인정보보호위원 조사조정관(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하였다.



박상희 동창



이선주 동창

#### 이선주(성악 85) 동창

사진작가 이선주 동창의 사진전 ‘女행사진3’이 서울 강남구 갤러리 구하(丘下)에서 5월 2일(화)부터 28일(일)까지 열렸다



이선주 동창



최승애 동창

#### 최승애(조소 85) 동창

4월 2일(일)부터 10일(월)까지 금보성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개최하였다.

#### 안은미(무용 86) 동창

5월 12일(금)부터 14일(일)까지 예술의전당 CJ토월극장에서 저신장 장애인들과 전문 무용수들이 한 무대에 서는 ‘대심(大心)팬쓰’를 선보였다. 이

공연은 작년 시각 장애인들과 함께한 ‘안심팬쓰’에 이어 소수자들의 아름다움을 조명하는 3부작으로 내년에는 ‘방심팬스’가 이어질 예정이다.



안은미 동창

의에 동아시아 대표로 참석했다. 김 동창은 프리빅 회의에 2013년부터 한국 대표로 참여하였고, 올해부터는 동아시아 대표 자격으로 참여하였다.



김영주 동창

### 원숙연(행정 86) 동창

모교 행정학과 교수 원숙연 동창이 5월 10일(수) 한국연구재단 주관 ‘2017년 인문사회분야 우수학자 지원사업’의 우수학자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원 동창은 향후 5년간 연구비 지원을 받게 된다.



원숙연 동창

### 문혜성(의학 88)·정경아(의학 96)·이사라(의학 99) 동창

문혜성·정경아·이사라 동창으로 구성된 연구팀의 연구 ‘싱글 사이트 로봇수술을 이용한 연속적인 61명의 자궁근종 절제술 환자 분석’이 미국 부인과내시경학회 공식저널인 《JMIG(The Journal of Minimally Invasive Gynecology)》에 게재되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이대목동병원 부인과 로봇수술 술기가 세계 최고 수준임을 입증했고, 전세계 부인과 의사들의 수술 기준의 참고자료로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혜성 동창



정경아 동창



이사라 동창

### 채림(불문 86) 동창

‘옻과 자개의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채림 동창이 2017 New York Art Expo에서 Solo Award Winner상을 수상했다. 한국인으로서는 최초 수상이다. 또한 5월 31일(수)부터 6월 5일(월)까지 가나 인사아트에서 개인전 ‘Changson De La Forêt’를 개최하였다.



채림 동창

### 김선미(조소 88) 동창

3월 15일(수)부터 22일(수)까지 갤러리 한옥에서 개인전을 개최하였다.



김선미 동창

### 김양선(조소 94)동창

4월 25일(화)부터 5월 6일(토)까지 파비욘드갤러리에서 개인전을 개최하였다.



김양선 동창

### 김영주(의학 88) 동창

김영주 동창이 5월 7일(일)부터 11일(목)까지 미국 텍사스에서 열린 전세계 ‘프리빅(PREBIC·Preterm Birth International Collaborate)’ 회

### 박소정(화학 94) 동창

박소정 동창이 3월 23일(목)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차세대 한림원(Y-KAST)’ 창립회원으로 선출됐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우수한 연구업

적을 내고 있는 만 45세 이하 젊은 과학자들을 뽑아 차세대 한림원 회원으로 선정하고 있다.



박소정 동창

### 박은경(유교 95) 동창

영국에서 남편 박계원 목사와 유대인 선교활동 중인 박은경 동창이 5월 19일(금)부터 20일(토)까지 재영한인선교사협의회와 재영한인교회연합회 공동주최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나라’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박은경 동창

### 박수현(컴공 99) 동창

박수현 동창이 중앙대 전자공학과 조교수로 발령받았다.

### 권현진(회화·판화 03) 동창

3차원의 조각 회화를 개척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권현진 동창이 5월 13일(토)부터 6월 10일(토)까지 서울 한남동 표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불가시의 가시화’라는 주제로 입체추상화와 영상 설치 작품 등 30여 점을 선보였다.

### 이지연(회화·판화 03) 동창

공간을 주제로 작업하는 이지연 동창이 ‘공간드로잉’ 전을 룬트갤러리에서 열고 신작을 선보였다. 이번 전시는 4월 한달간 개최되었다.

### 백은하(패션디자인 09) 동창

4월 22일(토)부터 6월 28일(수)까지 서울 압구정 한사토이에서 ‘라이프(LIFE)–천과 실로 그린 동물 이야기’ 전시회를 열었다. 모피 등 의류 제작에 희생되거나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실과 천을 소재로 하여 캔버스 위에 수놓았다.

### 권민혜(정보통신공학 11) 동창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IEEE ICCE(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sumer Electronics) 2017'에서 우수논문상(Best Poster Video Award)을 수상했다. 권민혜 동창은 ‘Analysis on Decoding Error Rate of Systematic Network Coding’를 주제로 네트워크 코딩을 이용하여 안정적으로 실시간 영상 데이터를 전달하는 기술을 발표했다.



권민혜 동창

### 신선영(독문 11) 동창

신선영 동창이 독일 정부 장학금(DAAD)을 받아 독일 뮌헨 대학 박사과정에 진학하여 독일 중세 문학을 전공하게 되었다.

### 조윤애(물리 11) 동창

조윤애 동창이 ‘2016년도 BK21 플러스 우수 연구인력’으로 선정되어 3월 8일(수) 부총리 표창을 받았다. 조 동창은 3년 6개월 동안 수 편의 논문을 게재하고 학술대회 발표율 40여 회가량 진행하는 등 우수한 연구성과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조윤애 동창

### 강다현(산업디자인 13) 동창

3월 6일(월)부터 9일(목)까지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된 ‘제12회 ACM/IEEE 국제 인간-로봇 상호 작용 학술대회 2017(HRI 2017)’에서 강다현 동창 팀이 포스터발표 부문에서 우수신진연구상(Best Late Breaking Report Nomination), 로봇 시연 부문에서 우수구연상(Best Demonstration



강다현 동창

Nomination)을 받았다.

### 김정은(독문 13) 동창

김정은 동창이 독일 정부 장학금(DAAD)을 받아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 박사과정에 진학하여 북한학을 전공하게 되었다.

### 이준형(경제 14) 동창

교육부 주최 ‘2016년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 체험 수기 공모전’에서 최우수상(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이준형 동창은 사고로 인해 뇌 손상을 입은 장애 학생의 수업 도우미 활동을 하면서 느낀 보람과 변화된 인식을 작성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준형 동창

### 황지원(환경 14) 동창

미국 NASA 제트추진연구소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세계 최초로 인공위성 에너지수지 자료를 분석하여 북극지역의 기후피드백 작용을 종합 진단하였다. 이 연구는 《Climate Dynamics》지 4월호에 발표됐다.

### 이예본(환경 15) 동창

환경부의 지원을 받아 미국 콜로라도 주립대의 연구진과 공동연구를 진행했다. 첨단 인공위성 자료를 이용해 황사 예측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이번 연구는 최상급 국제학술지 《Remote Sensing of Environment(RSE)》에 게재됐다.

### 박윤주(컴공 15) 동창

2월 14일(화) ‘제23회 한국반도체학술대회 시상식’에서 ‘SK하이닉스상’을 수상하여 상장과 상금 100만 원을 수여받았다. 반도체학술대회는

24년 전통을 가진 동 분야 국내 최대 규모 학술대회로 연 1만 7,000여 명의 산학연 연구자들이 참여한다. 박윤주 동창은 반도체소프트웨어분과에서 유일한 수상작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박윤주 동창

### 고연숙(제약 16)·김소현(약학 16) 동창

4월 7일(금)부터 8일(토)까지 동덕여자대학교 백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대한보건협회 60주년 기념 제41회 보건학종합 학술대회’에서 우수 포스터 발표 장려상을 수상했다.



고연숙 동창

김소현 동창

### 손세린(사회과교육 16)·박예림(사회과교육 17) 동창

지리정보시스템(GIS) 전문 기업 한국에스리에서 개최한 ‘제1회 맵 콘테스트’에서 손세린·박예림 동창이 각각 1등상(Best Storytelling Award)과 3등상(‘Where’ Award)을 수상했다.



손세린 동창

1등 수상자는 7월 8일(토)부터 14일(금)까지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GIS 유저 컨퍼런스인 ‘ESRI User Conference’에 GIS분야 젊은 인재로 초빙되어 ‘영스칼라워즈(YSA·Young Scholar Awards)’를 수상하게 되고, 왕복항공권 및 숙박, 체재비 등의 일체를 지원받게 된다.

• 146호 12p의 사진 설명을 ‘1956년 창립 70주년 행사 때 입은 한복사진’으로 정정합니다.

# 동창이 펴낸 새 책

졸업연도 순서로 계재

## 아버지의 산 이정자(기독 66)

이정자 지음 / 국학자료원

- 시인 이정자 동창의 제9, 제10 시조 집의 합본으로, 제9 시조집 『아버지의 산』과 제10 시조집 『전월시조』가 상재 되었다. 이 동창은 (사)한국시조문학진흥회 이사장을 역임했고 현재 고문이다.



## 안녕, 미미야? 오윤경(약학 73)

이소연 지음, 오윤경 그림 / 이지출판

- 모교 약학과를 졸업하고 광고디자인을 전공한 오윤경 동창이 자신의 그림과 딸이 쓴 글을 함께 담은 예쁜 그림동화를 출간했다. 사랑스러운 사막여우의 이야기가 따듯한 색연필 터치로 표현되어 있다.



## 우치무라 간조, 신 뒤에 숨지 않은 기독교인

양현혜(기독 83)

양현혜 지음 /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 일본 기독교계를 대표하는 종교 사상가 우치무라 간조의 탄생부터 죽음에 이르는 삶의 모습과 사상, 사회적 활동을 살펴볼 수 있는 생애사 성격의 연구서이다. 양현혜 동창은 모교 기독교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 날고 싶은 인간의 욕망, 발레

조기숙(무용 85)

조기숙 지음 /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 발레의 특성과 역사, 핵심 원리와 기본 동작 등에 대해 철학적 성찰을 바탕에 두고 설명한 책이다. 일반인의 이



해를 돋기 위해 발레 공연과 기본 동작 등 다양한 사진 자료를 곁들여 흥미를 더하고 있다. 조기숙 동창은 안무 가이자 무용가이며 모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 뉴스 안과 밖의 여성 김경희(커미부 89)

김경희 지음 /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 김경희 동창은 이 책에서 한국 저널리즘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젠더 문제를 지적하고, 양성 평등적인 뉴스 제작을 위한 방안들을 법제도적 측면과 인식적 측면에서 제언하고 있다. 김 동창은 한림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 변화를 만드는 초국적 여성운동 2 : 아시아·아프리카 여성 활동가 112인의 이야기

이명선(대학원 89) · 노지은(경영 92) · 이은희(대학원 12)

이명선, 노지은, 김나연, 이소정, 이은희 지음 /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 '이화글로벌임파워먼트프로그램 (Ewha Global Empowerment Program, EGEP)' 6기부터 10기까지 참가했던 여성활동가 112인의 이야기를 그들의 사진과 함께 엮었다.



## 브리크디자인북:온당 편 윤주연(건축 05)

윤주연, 이원석 지음 / 브리크컴퍼니

- 책 한 권에 집 한 채를 소개하는 브리크디자인북 시리즈의 첫권. 분당 판교에 지어진 두 가구가 함께 사는 땅콩집 '온당'을 내부 사진과 함께 입면도, 단면도, 투시도 등을 일러스트를 가미해 재구성했다.



# 이화동창 회비를 납부해 주십시오

이화동창 여러분! 총동창회의 연회비, 평생회비 납부에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회비는 1년에 한 번씩 납부하는 연회비와 평생 한 번 납부하는 평생회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연회비 대신 평생회비로 납부하셔도 됩니다. 동창들께서 보내 주신 회비는 총동창회의 장학사업, 회보 제작, 모교 기부금 등으로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회비 납부를 통해 이화 사랑의 힘을 보여 주십시오.

## ■ 평생회비(납부자는 연회비 면제)

30만 원 – 2017년 기준 만 60세 이상, 1979년 이전 졸업 동창

50만 원 – 2017년 기준 만 60세 미만, 1980년 이후 졸업 동창

## ■ 연회비(1년에 1번씩 납부)

3만 원

## ■ 납부 방법

지로 입금 – 《이화동창》에 동봉된 지로용지를 통해 납부

계좌 이체 – 신한은행 100-009-592614(예금주: 김영주 이대총동창회)

※ 송금시 성명, 학과, 졸업연도를 꼭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후원이사를 하실 동창은 총동창회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2-3277-3386)



iSOI

유해성분에 반대합니다.



# 잡티, 이 아이만 믿으세요!

독일 더마테스트 EXCELLENT 등급 획득!  
미국 프리미엄 유기농 마켓 홀푸드 판매중!  
올리브영 에센스 판매량 4년 연속 1위!  
많은 분들께 사랑받고,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아이소이 잡티세럼 효과, 직접 경험해보세요.



독일 알러지테스트  
Excellent 등급 획득



미국 프리미엄 유기농  
마켓 홀푸드 입점



올리브영  
4년 연속 1위



파우더룸 2016  
뷰티어워즈 1위

# 최고의 성혼율 S노블



“Looking for spouse?”

## 참 한결같은 S노블

아무나 가입을 허락하지 않고 함부로 만남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당신께 100% 만족을 드리기 위해. 당신에게 꼭 맞는 만남을 찾고자 노력하는 S노블

만족의 크기가 다릅니다. 1%의 만남을 위한 100%의 약속, S노블

성혼시까지 무기한 · 무제한 결혼정보 서비스로 성혼을 책임집니다.

SINCE1999

[www.snoble.com](http://www.snoble.com)

이화여대 동문 및 자녀 분들을 특별히 모시겠습니다. 02.3445.4777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101-7번지 패밀리빌딩 2F | 결혼증개업 신고번호 : 강남080045

대한민국 최초 상류층 결혼정보클럽  
 S Noble  
SINCE 1999